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다음 세대에 이 뜨거운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 가운데 늘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이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17절

“신앙의 수호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CT, 하나님 앞에서 대관식 서약을 이행,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며 산여왕의 신앙 소개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전례 없는 재위기간 동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여왕의 할아버지인 조지 5세가 시작한 전통인 크리스마스 연설에서 1952년 여왕은 자신의 대관식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러분의 종교가 무엇이든 그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할 엄숙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제게 평생 주시

길 기도합니다.”라고 여왕은 말했다.

그 이후 70년 이상 동안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여왕은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세계적이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어떻게 한 개인이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 신앙을 통해 자비로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Queen Elizabeth II, British Monarch Who Put Her Trust in God: In her seven-decade reign, she spoke regularly of the importance of her personal faith)

1534년 헨리 8세가 왕위를 포기한 이후 영국 군주에게 부여된 신앙의 수호자이자 영국교회 최고의 종교적 책임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물려받았다. 1953년 대관식에서 “영국의 법에 따라 불가침의 영국교회 정착과 교리 예배와 규율,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보존하겠다”라고 여왕은 맹세했다.

여왕의 임무는 총리의 조언에 따라 영국 교회의 대주교, 주교, 학장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1970년 여왕은 교회 총회에 취임하여 연설한 최초의 군주가 되었는데, 이후 교구 주교 선거 이후 5년마다 수행한 관례이다.

대관식 3주 뒤 여왕은 역사적 선례를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 확립된 진정한 개신교의 정착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존중하며, 스코틀랜드 교회를 유지하겠다고 맹세했다. 스코틀랜드교회는 장로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교회의 왕과 수장’으로 인정하고 있어 여왕은 공식적인 직함이 없어 결회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여왕의 믿음은 역사



적 전통에 대한 정중한 존경의 산물 그 이상이었다. 통치 기간 내내, 여왕은 믿음의 중요성을 분명히 언급했고 사람들에게 추천하기도 했다. 2000년도에 여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책임은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을 세워줍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듯 저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큰 위로를 받았습시다.” 2002년 여왕은 여동생 마거릿 공주와 어머니인 왕비의 죽음으로 인해 일 년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냈다. 그 해의 연례 크리스마스 연설에서, 믿음은 자신을 어떻게 지탱해 주었는지 말했다.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이 모두 지나기 위해 믿음에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매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멀리 내다보는 것,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 삶을 사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라고 말했다. (3면으로 계속)



Z 세대, 급여 공개에 꺼리낌 없다!

BBC, 틱톡 중심으로 유행하는 “급여 투명성” 찬반 논란 소개

Z세대(1990년대 중후반~2010년대 초반 출생)는 그날 입을 옷부터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까지 모든 일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오랜 금기를 깨고 온라인에서 월급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Pay gap: Will Gen Z salary-sharing on TikTok make a difference?)

거리에서 한나 윌리엄스(25)를 마주한다면 다소 개인적인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을 하고요 얼마를 버시나요?”

윌리엄스는 팔로워 85만여 명에 ‘좋아요’ 수 1670만 개의 기록을 보유한 틱톡 계정인 ‘월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리(Salary Transparent Street)’의 설립자다.

윌리엄스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길거리 시민들을 붙잡고 이들의 직업과 월급을 묻는 영상을 업로드한다.

윌리엄스는 과거 자신이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던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틱톡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팔로워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얼마를 버는지 솔직하게 공개하자 팔로워들이 놀라워했다고 한다.

“월급은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그런 주제가 돼야 한다”는 윌리엄스는 “월급 얘기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돼야 하며, 성별 및 인종에 따른 임금 격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월급에 대해 반드시 공개적인 답변이 이뤄져야 하는구나’는 걸 느꼈다. 이를 기반으로 틱톡 계정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3면으로 계속)

발행인 겸임
김성국 목사
2면

푸른초장
김흥철 목사
4면

평생을 위한 조신학
이길호 목사
7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서,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지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 치아임플란트
- 구강외과/틀니
- 보철치료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LA 호텔식 아숙 GUEST HOUSE
www.laguesthouse.com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필수조건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 Email: laguesthouse@live.com

제9차 다민족선교대회 2022

The 9th Multi-Nation Christian Missions Gathering

GO or SEND

Sun. October 16, 2022 at 5pm.
Central Presby. Church of NY
(뉴욕센트럴교회) 154 Old Westbury Rd. Old Westbury, NY 11568
Tel. 516. 387. 9940

■ 연락처 Contacts: 회장 황규복 장로(917-204-9879), 준비위원장 송정훈 장로(917-921-3310)

주강사 Main Speaker
Rev. Jaeyeol Kim
(Central Presbyterian Church of NY, Pastor)

Special Support(특별후원): The Korea Times, The JoongAng The Korea Daily, Danbi TV
Support(후원):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뉴욕한인목사회, 뉴욕기독교방송(CBSN),
미주기독교방송(KCBN), K-Radio(AM1660), 기독교뉴스, 복음뉴스, 아멘넷,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헤럴드, 뉴욕장로성가단, 국민일보, 뉴욕일보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
Host: Korean Elders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발행인 칼럼

아내의 사진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착하다 착하신 둘째 매형은 빈털터리였으나 행복했다. 딸의 작은 아파트에서 딸과 사위, 그리고 세 명의 손자 손녀들의 정성을 다한 효도를 받으며 사셨다. 지난 8월 말에 사랑하는 아내가 천국으로 간 뒤 갑자기 수척해지시다가 며칠 전 새벽, 아내를 따라 서둘러 하늘로 가셨다. 둘째 매형은 아무것도 그 몸에 지니지 않았지만 딱 하나가 마지막에 입고 계신 옷 속에 있었다고 한다. 누님의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다. 조카가 한국에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울고 또 울었다. 땅에서는 울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매형과 누님이 한 달여 만의 재회를 즐기실 것이다.

대전에서 사역할 때 아버지 학교에 참여한 적이 있다. 몇 주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돌이킨 시간이었다. 스스로 깜짝 놀란 것은 그토록 오래 같이 살았던 아내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눈에 보이는 아내의 옷 size, 신발 size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으니 그 속마음을 어떻게 헤아렸는가. 아버지 학교에서 아내에게 세족식을 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살짝 흘리기는 했지만, 그 후에도 단 한 가지를 빼고는 남편으로서 짐승을 후히 줄 수 없었다. 괜찮은 것 하나는 지금까지 아내의 사진을 지갑 속에 고이고이 품고 다닌다는 것이다. 이 칼럼을 쓰면서 다시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결혼식 날 사진이다. 하얀 신부 드레스를 입고 가냘픈 얼굴에 고운 자태를 보이고 있는 독사진이다. 아내의 사진을 보니 몹시 추웠던 결혼식 날이 생각났다. 그 후 삼십수 년을 같이 살고 있다. 그동안 많이도 추웠으리라.

돌이켜보니 아내에게 섬김을 받은 것은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수없이 많다. 오늘도 새벽 예배 때 운전을 해주었고 새벽 예배 후에는 차를 타준 후 와이셔츠를 한 아름 끌어안고 다리미 판 앞으로 갔다. 나는 아내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다. 묵회한다는 것이 무슨 면죄부나 되는 것처럼 아내의 일방적인 희생을 말없이 턱없이 요구한 세월이었다. 나는 아내의 사진만이 아니라 아내의 남모름 아픔도, 자그마한 소원도, 친정식구 만나고픈 마음도 풀어 주어야 했다. 가만히 보니 아내의 사진이 무엇인가 말하는듯한데 기왕이면 이렇게 말해주었으면 좋겠다. "내 사랑, 지난 39년 동안 주님 안에서 당신의 묵회 길을 함께 걸어 온 것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되어요." 과연 뻔뻔스런 내 바람대로 말할까.

그대가 남편이시라면 아내의 사진은 어디에 있는가. 스마트폰을 열면 수없이 보이는 사진 말고 빛은 바랬을지언정 인화(印畵)된 사진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사진은 위대하다. 사진은 경이로운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진은 순간을 영원으로 남기는 놀라운 발명품이다. 사진은 다시 그 날로 돌아가고 싶은 추억의 유혹이다. 사진은 그 때와 지금을 잇는 구름다리이다. 사진은 사진을 찍은 그 날부터 사진을 다시 보는 그날까지 곁집이 쌓였던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의 광장이다. 이렇게 멋진 사진 중에 사진은 아내 사진이어야 하리라. 이 가을, 아내 사진을 꺼내 들면 어떠실까. 잠시 바라보고 그 사진을 옷 안쪽에 넣는 것이다. 그리고 홀로 산책을 나서는 것이다. 아내의 사진과 함께 산책에 나서는 것이다. 아름다웠던 과거로의 산책을. 새로워질 미래로의 산책을...

교회의 역사는 보존되어야 한다

TGC, 지역교회 역사의 중요성과 보존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 7가지 소개

워싱턴 DC에 있는 캐피톨 힐 침례교회는 갈등의 수렁에서 빠져버렸다. 53 대 52로 갈라진 채 몇 달째 계속된 교인 투표에 다들 지쳤고 담임 목사도 한계에 다다랐다. 언제? 1884년. 무슨 문제로? 두 번째 교회 건물의 위치와 차입금 규모. 담임 목사가 다수의견에 거부하자 교인 60명이 그의 사임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1884년 10월 23일, 담임 목사는 곧장 그렇게 했고, 다른 교인 33명을 데리고 나가 겨우 한 블록 반 떨어진 곳에 라이벌 교회를 시작했다.

교회 설립 6년 만에 캐피톨 힐 침례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되었고, 채무에 시달렸고, 교인 수는 60명 선을 넘지 못했다. 교회의 앞날에 실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그러나 14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알고 있다. 그 오랜 세월이 흐르는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보존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 오신 일을 알 수 있는 건 오로지 이 교회의 초기 이야기가 세심하게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7 Simple Steps to Preserve Your Local Church's History)

당신이 지역교회 목사나 교회 행정가라면, 당신은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이야기를 전하는 일차 자료의 금광에 앉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신의 교회의 역사가 5개월이든, 5년이든, 50년이든 상관없이 지금 문서를 어떻게 보존하고 정리하고 있는가에 따라 미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하신 일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나는 최근에 캐피톨 힐 침례교회의 역사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수천 페이지의 메모, 회의록, 기사, 및 편지를 일차 자료로 하여 이 작업을 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이러한 문서를 보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실감했다.

교회가 그들의 과거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 교회는 집단 기억 상실에 빠진다. 교회의 기록을 추적하는 것은 미래 세대가 우리의 실패로부터 배우고,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도록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지역 교회의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실행에 옮겨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여기 그 일곱 가지 핵심 사항이다.

- 1. 회의록 보관에 주의를 기울이라. 5. 원로 교인을 인터뷰하라.

당신이 새로운 교회 개척자이든 100년 역사의 교회이든 상관없이 교회의 모든 리더십 모임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당신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든, 모든 교회에는 결정을 내리는 심의 기구가 있다. 그 회의의 의사록은 교회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창이 된다.

- 2. 교인 인터뷰 기록을 축적하라.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교인이 되는 절차가 있다. 종종 여기에는 신청자가 간증과 이전 교회 경험을 나누는 인터뷰도 포함된다. 새 회원의 허락을 받아 주의 깊게 기록하고 사본을 보관하라. 이 인터뷰는 미래 세대가 그 교회를 이룬 교인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3. 설교 원고와 녹음을 보관하라.

많은 목회자가 자신의 설교 노트와 녹음



음을 보관하고 있지만, 그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다른 교회로 옮길 때 그 원고는 가족이 보관하고 교회에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목회자들은 교회 기록 보관소에 보관할 설교 원고와 녹음을 추가로 복사하여 그 교회의 역사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 목사가 떠난 뒤에도 미래의 성도들은 복음이 어떻게 충실히 전해졌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 4. 회원 명부를 꾸준히 갱신하라.

많은 교회에서 교인 명부를 묵회 및 회중 기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회원의 연락처 정보를 보관한다. 교인 명부는 미래의 역사가들이 연구에 유용한 교인 이름, 가족, 주소 및 회중에 대한 기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

- 5. 원로 교인을 인터뷰하라.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회중의 연로한 성도들을 정기적으로 인터뷰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그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와 교회 경험을 청취하라.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교회 지도자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것이다. 나이 든 교인에게 그의 이야기가 회중을 격려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미래에 그 교회 역사의 기록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목적을 위해 인터뷰 양식을 만들고 메모를 작성하고 녹음하고 인터뷰 내용을 복사하여 보관하라.

- 6. 종이 사본을 보관하라.

대부분의 기록이 디지털화되고 있지만, 중요한 문서의 인쇄본도 교회 사무실에 보관하라. 직원이나 목회자가 바뀔 때 디지털 문서는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직원이 인수인계할 때 물리적 문서는

그 건물 밖을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

- 7. 수정을 삼가라.

마지막으로, 교회의 결정을 드러내는 기록이라 할지라도 가감을 삼갈 것을 권장한다. 복음은 우리 자신을 위선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는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는 방식에도 적용된다. 구속의 드라마처럼 당신의 교회 이야기에는 영웅과 악당, 실수와 실패가 있을 것이다.

회의록과 교인 이야기를 기록할 때 불편하거나 불행한 장을 숨겨서는 안 된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델라웨어 침례회(Delaware Baptist Association)의 역사를 저술한 챔프 손턴이 얼마 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목표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어두웠던 시기의 이야기도 해야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더욱 돋보일 것이다."

당신은 그 열매를 결코 볼 수 없게 모르지만, 교회의 역사를 문서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단계를 따르면 미래의 지도자와 지역 교회의 교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역사 보존이라는 선한 일은 희망의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 사명을 맡겨 주실 것이라는 희망, 미래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희망,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변화된 공동체를 보존 하셔서 수십 년 또는 수 세기 후에도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담은 일인 것이다. 시편 기자가 말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 하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라."(시 102:18)

(필자인 갈렙 모델 목사는 동 교회 담임 목사 보좌와 교회 역사 보존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9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4, and Nov 26,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2022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 공동체" 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제 21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엘리자베스 2세 여왕...

(1면에서 계속)

1926년 4월 21일 태어난 엘리자베스 알렉산드라 메리 윈저는 요크 공작과 공작부인의 첫째 자녀이자 군주 조지 5세의 첫째 손녀로 집안에서 릴리벳으로 불리며 사려 깊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라며 사랑받았다.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1936년 그의 형 에드워드 8세가 이혼녀 윌리스 심슨과 결혼하기 위해 퇴위하며 조지 6세로 왕위에 올랐다.

엘리자베스는 후계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고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여자 국방군에서 근무했다. 1947년 엘리자베스는 그리스와 덴마크 왕족의 필립 마운트배튼과 혼인했다. 이들은 2021년 필립이 사망할 때까지 73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했고 웨일스 왕자이자 후계자인 찰스, 왕실 공주 앤, 요크 공작 앤드루, 웨섹스 백작 에드워드 등 4명의 자녀가 있다. 여왕은 슬하에는 자녀 외에도 8명의 손주와 12명의 증손자가 있다.

재위 초기부터, 여왕은 특히 연례 크리스마스 방송에서 성

경 말씀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인용했다.

“이 보물창고 같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진리보다 더 큰 영감과 조연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2016년 연설에서 여왕은 이렇게 말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빛을 찾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작은 일을 누가 하든지 그들이 무엇을 믿든지, 큰 사랑으로 작은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에 가치를 느끼게 하므로 저 역시 그들 중 한 명입니다.”

여왕과 절친한 친구였던 빌리 그레이엄은 자서전(Just As I Am)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깊고 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증명했다.

그레이엄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어느 누구보다도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단 둘이 만나거나 가족이나 다른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오찬이나 저녁 식사와 같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주

었습니다.”

이들은 만남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거나 관계를 업무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2018년 그레이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60년 넘게 우정을 이어갔다. 그레이엄은 “항상 그녀가 성경 말씀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여왕의 성경과 복음 사랑은 그녀의 90세 생일을 기념하는 특별한 책 출판 참여로도 이어졌다. 캐서린 버처와 마크 그린의 공동 저술한 책은(The Servant Queen and the King She Serves) 여왕의 기독교 신앙에 관한 내용을 다뤘으며, 여왕이 후원자로 활동한 영국 성서공회에서 HOPE 및 런던현대기독교연구소와 함께 출간하였다.

여왕은 독자들의 기도와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직접 서문을 썼다.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진실로 그분의 신실함을 보았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이 책은 2016년 여왕의 생일을 앞두고 영국 전역과 많은 영연방 국가에 걸쳐 수천 개의 교

회에 배포됐다. 책의 수요가 많아서 성경 협회는 150,000부를 추가로 인쇄해야 했다.

한 국가의 공주이자 교황이며, 수장이자 증조할머니, 외교관이자 제자였던 여왕은 변함 없이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고, 역사적 변화와 기술 진보가 역동하는 시기에도 나라와 영연방을 안정시켰다.

세인트앤드루스 신학교의 이안 브래들리 교수는 “궁극적으로 군주제는 그 자체를 넘어 신의 위엄을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군주제는 하나님을 주신 경외, 충성, 예배의 힘을 장려한다. 그것은 진정한 제재와 권위를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 부터 이끌어 낸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그런 군주였다. 여왕은 20세기와 21세기, 현대와 포스트모던을 넘나들며 자신이 견뎌낸 수많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닦아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대관식 서약을 이행하며 충실하게 살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다.



시론

내면을 보여주는 언어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주간 한국을 시끄럽게 했던 주요 내용 중의 하나는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랜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비속어(욕설)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욕설을 한 대상이 한국국회이나 미국 국회이냐를 놓고 설왕설래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국회의든 관계없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언어에 의해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욕을 한 주체가 소위 말하는 힘을 가진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선교사들의 사역보고를 듣다보면 선교사들이 선교지 백성들을 지칭할 때 대단히 조심스럽게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주 드물게 선교지 백성들을 마치 물건 지칭하듯이 ‘그것’ ‘이것’과 같은 단어를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과 맘을 드러 섬기고 있는 선교지 백성들을 물건 지칭하듯이 지칭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는 선교지는 더 이상 들어보지 않아도 가 보지 않아도 무엇이 남아 있는지 흰하게 보입니다. 그건 바로 기득권을 가지고 선교지 백성들을 짓누르는 그런 제국주의 심보(心襟)일 것입니다.

얼마 전 모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당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대통령도 ‘웬만큼 속이 상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전직이 검사였던 만큼 이전에 피의자들을 대할 때 저런 식의 단어를 사용했었구나 하고 추측해 보았습니다. 평생 수사검사로 지내면서 범죄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사용언어들이 거칠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번엔 또 그것도 해외에서 이런 비속어의 사용을 보면서 ‘아, 저분에게 저런 단어는 기본적으로 배겨져 있는 언어이구나!’라는 생각에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국민을 하늘같이 우러러 볼 줄 아는 지도자의 자세로 출발해도 때론 우매한 국민들이 취하는 형편없는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을 하늘이 아닌 땅으로도 대우해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되는 한 국가의 의회원들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한다면 그런 마음의 중심에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는 어떤 단어가 숨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언어는 내면의 생각과 가치를 밖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연하게 생각없이 나온 말일뿐 그 마음에는 전혀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는 자세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며 남은 기간 동안 겸손하고 신실한 지도자의 언어와 행동이 넘쳐나기를 먼 타국에서 기도합니다!

살림. hankschoi@gmail.com

Z세대, 급여 공개에 꺼리짐 없다!

(1면에서 계속)

한편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윌리엄스뿐만이 아니다. 이제 젊은 세대는 트위터, 인터넷 밈, 틱톡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임금 투명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일부 정치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7일,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15명 이상 규모 사업장에선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업의 급여 자료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정부가 인종이나 출신 민족, 성별 등의 차이에 따른 급여 데이터를 추적하기로 했다.

이 법을 지지해왔던 Z세대 틱톡커들은 환호했다.

다른 주와 도시에서도 비슷한 법이 통과됐다. 과거 일부 사업장은 임금 공개 법안에 저항했으나, 이제 대세가 역전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리카르도 페레즈-트루길리아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교수는 미국에선 오랫동안 월급에 관한 이야기가 무례한 주제로 여겨졌다면 이는 소위 '몸값'에 관한 이야기로 여겨졌다고 설명했다. 페레즈-트루길리아 교수는 "

평균적으로 임금은 직원이 그 직장에서 얼마만큼의 존재 가치가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로 여겨졌다"면서 "그렇기에 월급에 관해 이야기하기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놀랍지 않다. 이는 마치 학창 시절 성적을 묻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취업정보 및 기업 리뷰와 연봉 등을 공개하는 취업사이트 '글래스도어'의 수석 경제학자인 아론 테라사스도 이에 동의하면서 "불안감"을 언급했다.

즉 자신이 남들에 비해 과하게 혹은 적게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평균에 벗어나는 사람이 될 텐데 누구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월급 공개를 꺼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젊은 세대는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꺼리지 않는다고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정보엔 월급 또한 포함된다.

급여 형평성 분석 플랫폼인 '신디오'의 마리아 콜라쿠르시오 CEO는 "사회운동이 대부분 그렇듯 젊은 세대가 (급여 형평성)의 길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 비즈니스 전문 플랫폼인 '링크드인'의 시장 조사 결과

'급여 공유가 급여 평등 개선에 기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Z세대의 80%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1990년대 후반 출생)에서 또한 75%가 같은 응답을 하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비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찬성 비율은 떨어졌다. X세대(1960년대 중반~1980년대 출생) 중엔 47%가, 그 이전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1940년대 중반~1960년대 초반)는 28%만이 찬성했다.

윌리엄스의 틱톡 활동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길을 걷다 직업과 월급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공개할 가능성이 훨씬 크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공개한다.

윌리엄스처럼 임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성별 및 인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 이들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노동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82센트를 벌며, 유색인종 여성은 이보다 수입이 더 적을 때도 있다고 한다.

한편 미국에서 여행 작가로 활동하는 빅토리아 워커는 직장을 관두면서 후임자를 구한

다는 구인 포스팅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수입도 공개했다.

"제 후임자로 지원하실 분은 연봉 11만5000달러 이상에 사이닝 보너스(계약결려금), (뉴욕으로 이사와야 한다면) 리로케이션 보너스도 요구하세요. 솔직히 공개하면 전 107,000달러를 받았습니."

워커는 직원들이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이러한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여왕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많이 없다"는 워커는 "이 업계엔 급여 투명성이 별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 공개가 성별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들 또한 존재한다.

일례로, 2006년부터 덴마크 정부는 기업들에 성별 임금 격차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별 임금 격차가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예로는 '전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공공부문 임금 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성별 임금 격차는 20~4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면으로 계속)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위치한 미국장로교회(PCA) 소속 제일장로교회는 지난 46년동안 지역 사회의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섬겨온 교회로서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 위에서 바른 성경적 리더십과 복음적 열정으로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갈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요건

- 정규대학 및 PCA가 인정하는 신대원 (M.Div)졸업자 및 그 이상의 학력 소지자
- PCA 소속 목회자 및 PCA 교단 가입이 가능한 목회자
- 미국에서의 10년 이상 건강한 담임목회 사역 경험자
-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위에 성숙한 신앙 인품과 건강한 목회리더십을 가진 자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이중언어(한어/영어) 가능한 자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포함)
- 자기 소개서 "구원과 목사로서의 소명과 사명에 관련 내용" (한글과 영문)
- 대학(B.A.) 신대원(M.Div) 혹은 그 이상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 소속 교단 총회 혹은 노회 발행목사 안수 증명서
- 추천서 2부 (동료목회자 1부, 노회 혹은 신학기관 1부)
- 최근 설교 동영상 Link 또는 File E-mail (영어설교가 가능한 분은 영어설교 추가)
- 가족 소개 사진이나 동영상
- 목회 계획서

제출 및 문의

- 제출 마감일: 2022년 10월 31일
- 제출 서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atlkfpcinvite@gmail.com
- 전경태 장로 678.362.7788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6175 Lawrenceville Hwy, Tucker, GA 30084 www.kfpcchurch.com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미국, 하늘 아래 첫 동네-콜로라도 스프링스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미국에서 해발 7천 피트(2,130m) 고도로 한라산보다는 약간 낮고 설악산보다는 높은 곳에 위치한 하늘 아래 첫 동네이다. 워낙 높은 지역이라 처음 온 사람들은 울렁거리고 호흡 곤란과 심하면 코피도 흘리는 곳이지만 적응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는 곳이다. 이런 자연환경을 이용해서인 미국 공군사관학교와 올림픽 선수촌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뿐

만 아니라 피터슨 우주군 기지와 포트 카슨 육군 부대와 퇴역 군인 가족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도 한 곳이다. 지형적인 환경은 캐나다 로키산맥이 이곳까지 뻗어 있어서 4,300 미터의 광활한 산봉우리들이 (Pikes Peak)가 53개가 줄지어 서 있는 거대하고 웅장한 곳이기도 하다. 깊은 계곡들과 천연의 호수들, 곳곳에 솟아오른 형형색색의 기이하고도 신령한 풍광을 지닌 기암

절벽의 거대한 바위들이 마치 신들의 전당 같은 분위기를 지닌 곳이다. 그래서 이곳에 미국의 최초의 국립공원인 '신들의 정원' (Garden of gods)이 그 위용을 떨치고 있다. 신비하고도 영감이 깊고 광활하여 한 때는 미국의 정령 숭배자들과 음부의 영권을 노리는 사교 집단들의 본산이기도 했다. 허피들이 사라지고 뒤편 이어 자연 정령 숭배 사상으로 다분했던 '뉴에이지무브먼트'가 이

지역에 대거 운집했고, 자칭 미국의 하나님이라는 자들이 앞다투어 모여 들었던 곳이기도 하다. 마치 과거 한국의 계룡산 신도안 마을처럼 온갖 이단 교주들의 집합체가 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에서도 살기 좋은 지역 상위권에 속한 전망의 도시가 되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여기까지 오게 된 잘 알려지지 않는 뒷이야기가 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한 한 젊은 전도자가 미국 내 어느 지역에서 전도할까 해서 지역 복음화 통계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 당시(1980)의 미국 내에 각 지역의 복음화 통계는 보통 60-70%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유독 10%대를 유지하고 지역을 발견했다. 바로 이 지역 콜로라도 스프링스였다. 그 원인과 배경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늘 아래 첫 동네인 이곳에 미국의 잠신 교주들이 하늘의 영기를 받으려고 집중적으로 모인 어둠의 지역인 것을 알았다. 이 젊은 전도자는 바로 이 지역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였다. 집집마다 복음

으로 문을 두드리고 얻은 소수의 성도들과 함께 목사관 지하실에서 '새 생명 교회'를 설립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복음주의 협회와 모든 복음주의 단체들과 기관들에게 영적 결투에 공동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설득했다. 그 결과로 맨 처음 미국의 복음 방송 '포커스 온 더 패밀리' 라디오의 제임스 답슨이 앞장서서 방송국을 현지로 옮겨와 공중과 복음 방송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들에게 선제공격을 개시했다. 이어서 미국의 성서 공회인 비블리카도 이 곳으로 옮겨왔고, 네비게이터, 위클리프, 컴패션, 영라이프선교본부와 미국 주일학교 공과 출판사인 데이비트, 국제 기독교교회연합회, 기독교 선교사 협회(CMA) 등등 무려 100여개가 넘는 복음주의 단체들이 대거 현지로 이전해 왔고 돌돌 문쳐서 영적 전투를 본격적으로 펼쳤다. 그 결과 음부의 권세들이 물러갔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새롭게 빛냈다. 이 거룩한 전쟁에 앞장섰던 전도자가 테드 헤가드 목

사였고 그의 교회는 출석 교인만 14,000명이 모이는 메가처치가 되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코로라도 전역에 2천 명에서 만 명이 넘는 교회들이 무려 32개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이 지역만 아니라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의 지역 사회와 복음주의 교회와 단체들을 집중적으로 이끌고 있다. 한가지 옥의 티가 있다면 선봉장으로 섰던 테드 헤가드 목사가 유혹과 마귀의 집중 표적이 되어 이기지 못하고 성적 부적절한 행위로 낙마했다는 슬픈 소식이다. 그는 교회에서 축출당했고 4년간 회개의 기간을 거쳐서 다시 세인트 제임스 교회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이번 한 주간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은혜와 도전의 여행길이었으며 모든 이들에게 한번 권해보고 싶은 여행이었다.

jkim47@gmail.com

푸/른/초/장

김흥철 목사
(LA 산울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참 흥이 오른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결혼 풍습은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정혼 기간을 갖고 그 기간이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집으로 데려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치릅니다. 이 때 혼인 잔치를 7일 동안 베풀니다.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은 혼주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7일 동안 잔치를 하다 보면 간혹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잔치의 흥을 깨뜨리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주인은 수치를 당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법적인 소송까지 받는 것이 당시의 관습입니다.

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두 시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께 도움을

의 수태고지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메시지를 들었고(눅 1:35),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가 탄생했을 때 다시 천사들이 나타나 이 아이가 그리스도 주이심을 선포한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한 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시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시각 속에는 예수님을 필요와 유익의 존재로만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단지 필요와 유익의 존재로만 찾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뼈만 남은 채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았다든지, 커다란 대형 버스와 충돌하여 자동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졌는데도 운전자는 기적적으로 살았다든지... 기적을 체험한 한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의 사건만 바라보지 않으시는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쫓지 말고 신의 성품을 닮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키를 예수님의 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때"를 요한복음에서 일곱 번(요 2:4, 7:30, 8:20, 12:23, 12:27, 16:32, 17:1)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때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처음 표적은 십자가 사건까지 연결시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때를 이루어 가기 위한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요 12:23)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오단강을 건너니.. 무한 영광일세.' 이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을 통해 죄와 허물로 절망과 죽음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잔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잔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잔치에서 기쁨과 환희의 잔치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는 처음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고 신성을 가지신 존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표적을 바라보는 시각도 풍요와 유익에만 그치지 말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셨던 십자가의 영역으로 시각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 기적의 영역을 넓히라! 십자가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고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만 추구하고지만,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관점은 다릅니다.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물 같은 우리들을 극상품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극상품 포도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기적에 힘입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위해, 비전을 위해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영역은 필요와 유익을 넘어서 십자가의 영역까지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영역까지 여러분의 사역과 사명이 확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Hckim600502@gmail.com

“표적을 바라보는 두 시각”

요한복음 2:1-12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 잔치에 예수님도 초대받았는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황당한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므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을까요? 포도주는 혼인 잔치의 기쁨과 환희의 상징입니다. 흥이 한창 무르익어갈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절망이요 좌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 물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잔치를 회복하고 기쁨과 환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 표적은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1. 기적을 보는 마리아의 시각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저 하나의 사건만 해결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

정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30년 사생애 기간에 보여준 신적 존재 같은 모습을 날카롭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가 열두 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선생들 앞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한 그 지혜와 대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눅 2:47), 천사

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병정하고 차갑지만 합니다. "여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4절)" 하며,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처음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표적을 베푸는 이유가

증 이야기는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곤경과 궁핍에 처할 때 주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체험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시각은 마리아처럼 여기까지입니다.

2. 기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십자가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은

맥아더 장군(General MacArthur)

맥아더 장군의 생가(Birth Place)가 본 교회가 소재하는 Little Rock에 있다. 전쟁기념관을 겸하여 있기에, 볼 것들이 이것저것 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굉장히 초라하게 꾸며져 있다는 것이다.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에게 전쟁의 영웅이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호전적인 인물로 평가되기에 그렇다고 한다. 그래서 단독 생가가 아니라, 전쟁기념관의 한 부분으로 생가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한 영웅 장군의 생가가 이렇게 초라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못하다. 마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갚지 못하는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맥아더는 이곳 리틀락의 군인 관사에서 태어났다. 나중에 장군으로 전역했지만 맥아더 출생 당시에는 대위 계급을 가졌던 군인 아버지와 교육열이 특심해서 그의 웨스트포인트 재학 당시에 학교 근처에 기숙

그곳에 가면, 맥아더의 일대기를 소개하는 사진과 신문 기사, 그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유독 한 장면의 사진이 인상에 남았다. 맥아더의 참모와 부관을 지냈고, 훗날 대통령이 되었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와 나란히 군복을 입은 채 군용차에 앉아 있는 장면이었다. 그 사진을 찍을 때 즈음에는 두 사람의 인기와 삶의 궤적은 전혀 비교 불가한 것이었다. 아이젠하워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하여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엄청난 공을 세운 인물이었지만, 맥아더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당시 맥아더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는 승전을 기념해서 뉴욕 맨하탄에 서 카피레이드를 펼치는 맥아더 장군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오색종이가 휘날리는 가운데 환호하는 국민들의 사진이다. 그리고 장차 세위질 맥아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일본인들의 기원을 담은 건물 벽 장식이었다. 맥아더는 영웅중에 영웅이었다. 특히, 일본에서 그는 우

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기없는 한 대통령과의 관계속에서 사울과 다윗에 대한 성경의 내용이 떠올랐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왕으로 세웠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의 찬양과 신앙의 고백을 생각하면 너무 아름답고 좋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이 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를 자신이 결코 해칠 수 없다는 마음과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 아파했던, 그래서 자신의 고통스런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 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자신이 왕이 되고 못되고, 자신의 고통이 어찌든지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그가 왕도 되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대신하여 다스려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흥망을 주동하는 신비한 영적 비

아이젠하워에게는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어릴적 신앙교육에 철저한 할머니 밑에서, 당시에 학교를 보내지 않고 교회에 보내서 교회에서 학교를 다니게 했다는 것이다. 특별한 것은 그의 어머니는 성경을 많이 외웠는데, 평생에 늘 가슴에 새기듯이 외운 성경구절이 600절 이상이었다고 한다. 어려운 살림에도, 그의 어머니는 아들 아이젠하워에게도 철저하게 성경을 읽고 암송하기를 가르쳤다. 그래서 훗날 그는 군인으로서 거친 전쟁터에 머물면서도, 늘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따라 자신도 주둔지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는 늘 성경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니면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를 전적으로 도우셨고 높여주셨다. 이러한 그의 모습이 그를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운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맥아더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 이유도 수 많은 가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신명기 26:12절을 보면 제삼 년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의 십일조는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십일조를 꼭 교회에 드리기보다 십일조를 나누어 선교와 구제와 전도 등 선한 일에 나누어 써도 괜찮은지요?
- 나성에서 김장로

A: 십일조는 창 14장을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자발적으로 십일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언약의 주로 믿는 믿음을 본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도 엄숙한 서원을 결할이면서 십일조를 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모세 언약에 관련하여 십일조의 언급은 모세오경에 5번 나오는데 그 첫째가 레 27:30-33절에 나옵니다. 레위기의 십일조 규정은 출 19:1-레 27:34절의 시내산 언약의 규범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십일조의 문맥을 보면 십일조 관습 혹은 전통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사사로이 지켜져 오다가 시내산 언약을 맺음을 통해 비로소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민 18:20-32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바쳐야 하는 것과 백성의 십일조가 레위인에게 희막 봉사에 대한 보수로 주어졌고 레위인들 역시 자신들의 수입에서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일조는 여호와와 그 백성이 맺은 언약 관계에의 표현으로서 의무적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을 제외한 모두가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께 곡식이든지 가축이든지 약속된 땅에서 얻은 모든 소산의 십일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일조는 여호와께 성별되어 바치는 것으로서 여호와께서 이 지상에 거하시는 장소로 지정하신 중앙 성소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십일조는 드리는 자가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면 십일조의 양이 많아 성소로 가져오기 어려우므로 돈으로 바꾸어 성소에서 다른 예물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십일조는 여호와와 백성이 맺은 언약 관계의 표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십일조는 소속 교회에서 선한 일까지 사용

제3년 차에 드리는 십일조는 신 14:22-29절과 신 26:12절에 나오는데 매 3년 차 새로운 십일조는 2가지 점에서 매년 드리는 십일조와는 달랐습니다. 첫째, 중앙 성소가 아닌 봉헌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성읍에 저장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그 용도와 관련하여 제3차 드리는 십일조는 레위인, 이방인, 고아와 과부 같은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 십일조 규정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박애(博愛)적 관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의 피상당자가 질문처럼 골고루 스며들어가게 하심으로서 신정국가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상당자가 질문한 것처럼 십일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본인이 소속하여 말씀을 받아먹는 제단에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십일조는 나 자신이 구제나 선교 등 여기저기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린면 교회에서 그것을 사용하되 교회 전반적인 필요한 부분뿐 아니라 구제나 선교교육에도 건요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내가, 이리저리 쪼개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제단에 온전히 바치면 교회가 그 십일조를 선한 일에 요긴한 곳에 잘 사용할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눈앞에 아른 거리기 때문이다.

최근의 들려오는 태평양 너머의 뉴스는 마음을 아프게 한다. 누가 보아도 대통령이 말실 수도 하고,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국적이 결린다면, 부족해 보여도 대통령의 권위를 조금 더 인정해 주고 갈 수는 없는 것인지? 가정의 가장이 밖에 나가서 실수했다고, 가장으로 인정 못하겠다 하는 자식들이 있다면, 풍가루 집안이 되지 않겠는가?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여도 그 아버지를 넘어 나를 수 있는 자식은 하나님에 복 주시지 않겠는가? 같은 당에 속하고도 대통령을 향해 내부총질을 일삼으며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쪼지 않은 정

년은, 세상 지식은 많아도 성경은 전혀 읽어보지 못한 것 같다.

말씀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현재의 훌륭함이 하나님 말씀의 길과 함께 가지 못할 때, 결국은 사라질 뿐이다. 멋진 말을 남기되 역사를 이루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런 지도자들의 정쟁에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오고가는 세대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니겠는가? 그들만이 병들고 말 것이다. 가을을 시작하는 즈음에,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기도의 시름이 깊어지면 간다.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 말씀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 맥아더, 아이젠 하워, 트루먼 -

하면서 헌신적으로 그를 뒷바라지 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출생지가 이렇게 군인 관사였고, 평생에 군대라는 야전에서 보낸 것을 보면, 출생 자체부터 어찌면 군인의 운명을 지고 태어났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전쟁기념관의 전면에 들어서면 특유의 라이방(?), Ray-Ban 선글라스의 멋진 미남 배우를 연상시키는 그의 대형 사진이 나타난다. 또한 그가 직접 달고 다니며 전쟁에 참전했다는 총알 구멍이 난자한 대형 성조기와 그의 흉상, 그리고 그의 작은 일대기를 연상시키는 빛바랜 영상이 늘 상영되고 있다. 그 영상에 익숙하게 들려오는 말,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Old soldier never die, I just fade away)'이 짙은 회색 군복 느낌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새로운 영감, 아이젠하워

이곳 리틀락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오시면, 기념관을 같이 방문한다. 방문할 때 마다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기념품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들을 때 마다 다른 느낌의 교훈을 받는다. 약간의 새로운 영감(Insight)을 얻기에 늘 기대감으로 찾아가게 된다. 최근에는 맥아더 장군이 즐겨 쓰던 라이방(?)을 쓰고 한국에서 방문한 선배 목사님 부부와 함께 방문했다. 선배 목사님의 영성이 남달라서인지,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 새로운 영감이 떠올랐다.

상적인 존재였다. 일본천황과 함께 찍은 유명한 사진이 있다. 반듯한 자세로 긴장감속에 서 있는 일본 천황옆에 비스듬히 서서 뒷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사진이다. 맥아더의 의도는 이를 통해 천황도 인간이라는 것을 일본 국민들에게 보여주자 한 것인데, 일본사람들은 그런 모습의 맥아더를 오히려 천황보다 더 큰 신(神)과 같은 존재로 섬기며 그를 우상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잘 나가던 맥아더였음에도 그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하던 중에 또 다른 자료사진 하나를 보게 되었다. 당시 맥아더를 웃고 있는 큰 거인의 모습으로, 트루먼을 겁먹은 작은 난쟁이처럼 그린 신문 만평이 실린 신문 사진이었다. 당시에 세계를 구한 전쟁의 영웅을 영웅으로 대하지 못하는 속 좁고 졸렬해 보이는 트루먼의 시기와 질투의 행태가 국민들이 보기에 안쓰러운 것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맥아더가 대통령 되지 못하게 간과한 부분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맥아더, 다윗과 사울

사회학자도 역사학자도 아닌 목사의 신분에서 느끼고 생각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대통령이 되고도 남았을 맥아더, 그에 비해 한참 부족해 보였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이라고 생각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형편없는 사울왕도 다윗에게는 마땅히 그가 섬길 왕이었던 것이다.

말씀이 미래를 결정

맥아더 장군에 대한 스토리를 계속 읽다보면, 그는 전형적인 군인이었다. 사관학교 수석 졸업에다가, 1. 2차 세계대전의 최고 영웅, 호주, 필리핀, 일본, 한국을 전쟁의 위기에서 건진 이루 말할 수 없는 훌륭한 군인이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를 너무 좋아한다. 특별히 그가 58세에 결혼을 하고 아들 하나를 필리핀에서 낳았는데, 그곳에 주둔하면서 썼다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 맥아더 장군의 기도는 아들을 키우는 목사 아버지로서 너무 멋진 기도문이다. 게다가 인전 상륙작전이후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국회에서 서서 기도로 시작하는 모습은, 생가 복원을 위한 모금 운동을 해서라도 그의 생가를 새롭게 꾸며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이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그는 왜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까? 그런데 그의 부관이었던 아이젠하워는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을까? 두 사람 모두 신앙인이지만, 아이젠하워에게서 느껴지는 또 다른 스토리가 있다. 교육열에 특심했던 맥아더의 어머니와 가난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던 아이젠하워의 어머니에게서 그 비밀의 한 부분이 들어 있다는 생각이다.

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목사의 작은 눈으로 볼 때는, 큰 사람 맥아더가 작은 사람(?) 트루먼 앞에서 조금 더 성경적인 겸손의 자세를 다윗처럼 취하였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성경의 한 부분처럼, 부족하고 형편없어서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했던 것처럼, 그가 아무리 권세와 인기가 많아도 겸손히 트루먼 대통령을 더 인정하며, 그 권위를 존중했더라면 어땠을까? 다윗은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울왕의 죄책이 있었음에도, 그는 철저하게 사울을 보호하고 왕의 지위를 인정해 주었다.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을 향해 천천과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떠들었지만, 그는 오직 한가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신을 붙들어 매고 있었던 것이다. 맥아더가 그와 같은 자세를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최고 지도자의 영광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조국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학자도 아니고, 식견이 큰 것도 없는데, 단지 맥아더 장군의 생가 옆에서 묵회를 한다는 마음에, 그를 무척이나 좋아하기에, 잠시 들러 본 생가 기념관의 사진 몇장 앞에서 이런저런 글을 주저리주저리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목회단상



여승운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참 좋은 친구 vs 진정한 친구”

근심 많은 이 세상은 참으로 외로운 곳입니다. 그런 외로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지쳐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커피를 함께 마실 수 있는 사람, 참 좋은 친구입니다.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참 좋은 친구입니다.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사람, 참 좋은 친구입니다.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친구와 진정한 친구 사이에는 경계가 하나 있습니다. 참 좋은 친구는 커피를 함께 마시고 운동을 함께 하고 여행을 함께 하고 일을 함께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란 한 가지 있습니다. 친구의 영혼을 위하여 염려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50세 후반의 백인 형제의 장례식 집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없었습

니다. 그런데 어떤 분으로부터 고인이 된 백인 형제와 30년 지기 절친 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교회를 30년을 함께 다녔습니다. 저는 절친 되는 분에게 고인이 된 친구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절친 되는 분의 대답이 한 번도 고인이 된 형제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기 때문에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30년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30년 동안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여행도 가고 함께 커피도 마시면서 매우 가깝게 지냈

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참 좋은 친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영혼을 위하여 염려해 주지는 않았습다. 그래서 참 좋은 친구는 될 수 있었지만 진정한 친구는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염려해 주는 진정한 친구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항상 염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 무엇보다 제일 우선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염려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참 좋은 친구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의 영혼을 위하여 염려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더 큰 외로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군중 속의 예배는 드렸으나 자신의 영혼을 염려해 주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을 염려해 주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염려해 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독교의 공훈과 섬김은 그 속에 사람들의 영혼을 염려해 주는 진정한 친구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공훈과 섬김은 표면적인 포장일뿐입니다. 실제 내용은 사람들의 영혼을 부여잡고 진정으로 염려해 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당대회 앞둔 中 첩보 방역

오는 16일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베이징시가 출입통제를 강화하면서 국경철 황금 연휴 기간 발이 묶인 사람들이 시내 명소로 몰리고 있다. 베이징 외곽 숙박 시설 중엔 하루 요금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오른 곳도 있어 폭리 논쟁이 불거졌다.



3일 중국 관영 매체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각 기업과 학교 등에 이달 1~7일 국경절 연휴 기간 가급적 베이징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연휴 뒤 다시 학교에 가려면 학생과 동거인 모두 등교 전 7일 동안 베이징에 머물러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강제 조치다. 베이징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가려면 48시간 내 발급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입경 후 3일 동안 두 차례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른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해당 지역에서 감염자가 나와 베이징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내외국인 할 것 없이 10일 격리방지를 유지하고 있다. 7일간의 황금 연휴에도 해외로 나가는 어렵고 여행을 한다면 중국 내에서 찾아야 하는데 베이징 시민들은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 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방역 통제는 한층 강화됐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지난 1일 고위층 지역에 머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입국시장을 방문한 평타이구 주민 주모씨 등 8명을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정대로라면 고위층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은 베이징에 바로 들어올 수 없고 스마트폰 건강 코드 색깔이 변해 공공장소에 드나들 수 없다. 그런데도 주씨는 화물차 운전석 뒤쪽에 숨어 시장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베이징 밖을 나가기 어렵다보니 시내 관광지마다 사람들로 북적였다. 베이징시는 연휴 첫날 이화원, 대운하삼림공원 등 시내 공원을 방문한 사람이 9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다고 밝혔다. 도심 내 공원을 찾은 사람이 44만4000명에 달했다. 도심 곳곳에서 '나는 조국을 사랑한다'고 적힌 스티커를 나눠주는 행사가 진행됐고 '당 대회를 맞아 조국에 선물을 바친다'고 적힌 배경판 앞에서 줄을 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았다.

베이징 교외 지역의 호텔과 펜션 등은 하루 이용료가 대부분 3000위안(60만원) 이상으로 올랐다. 인기 관광지인 고북수진의 한 숙박 시설은 평소 1000위안이면 묵을 수 있지만 지금은 4000위안이 훌쩍 넘는다. 중국 매체 평파이에 따르면 하루 300원대였던 숙박 요금이 3000위안 이상으로 10배 이상 오른 곳도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가격이면 해외 여행을 가고도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에선 2년 반 넘게 계속된 방역 조치로 침체했던 관광 산업이 간만에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연휴 기간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난성 장저제, 푸젠성 우이산 등 각 지방 명소들은 무료입장권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러시아 핵실험 준비 정황 '종말의 무기'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 의지를 드러낸 러시아의 핵실험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 핵 어뢰 포세이돈을 탑재한 러시아 해군 잠수함 K-329 벨고로드가 북극해로 출항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의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낸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러시아가 포세이돈의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첩보를 회원국과 동맹국들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포세이돈은 서방 세계에서 '종말의 무기(doomsday weapon)'로 묘사된다. 더타임스는 러시아의 포세이돈 탑재 잠수함 K-329 벨고로드의 북극해 출항과 더불어 "지난 주말 러시아 중부지역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이동하는 러시아 국방부 핵 장비 전담 부서의 열차가 포착됐다"고 했다. 친러시아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 '리바르'는 러시아에서 대형 화물열차가 군장비를 싣고 이동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폴란드 국방 전문가 콘라트 무시카는 이 열차를 '러시아 국방부에서 핵무기의 유지·관리·수송·배치를 담당하는 제12종군과 연계돼 있다'며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의지에 대한) 위세를 높인다고 서방에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단행할 목적보다 '무력시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제한적인 수준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6개월을 넘겨 수세에 몰리면서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방어진이 우크라이나 포대에 쏠린 사실을 인정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주 병참 요충지 리만을 탈환했고, 루한스크주 수복을 위해 진격하고 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는 각각 친러시아 세력과 러시아군에 장악돼 자치공화국을 주장하는 곳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대한 합병을 선언한 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제국주의 시절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한 선례를 언급했다.

금융시장 혼란 부른 英 부자감세 열풍 만에 백지화

영국 정부가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온 대규모 감세안 가운데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달 23일 발표 이후 10일 만이 다. 퀴지 콧텐 영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성명을 발표하고 소득이 15만 파운드(2억4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콧텐 장관은 "최고세율 인하 계획이 영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최우선 임무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도 트위터에서 "우리는 현 상황을 이해하고 경정했다"며 "최고세율 45% 폐지 계획은 영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됐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당내 반란과 금융 시장의 혼란을 촉발한 최고세율 인하 계획을 철회한 것은 '굴욕적인 유턴'"이라고 평가했다. 트러스 내각은 지난달 23일 2027년까지 69조원 감세를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감세안은 발표 직후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영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 확실해져 자 불안감에 휩싸인 투자자들이 영국 파운드화를 매도하면서 '파운드화 쇼크'가 일어났다. 영국 국제 금리도 크게 상승해 27일엔 30년물 금리가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공식적으로 철회를 촉구하는 등 나라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러스는 감세안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날까지도 그는 "패키지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러스 내각이 전격적으로 방향을 튼 결정적인 이유는 집권 보수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보수당 소속인 마이클 고브 전 주택부 장관은 45% 세율 폐지안을 두고 "잘못된 가치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영 일간 텔레그래프는 보수당 의원 중 최대 70명이 반대표를 던질 생각을 하고 있으며 45% 세율 폐지안을 1년 미루자고 촉구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보도했다. 감세안 중에서도 최고세율 인하 계획이 가장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다른 일간 가디언은 "이 정책이 많은 보수당 의원 반대로 의회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총리실이 깨달았다"고 분석했다. 트러스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정치적 위기가 커진 것도 정책 철회의 이유로 꼽힌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엄'의 온라인 설문에서 트러스 총리의 업무 수행 지지율은 18%에 그쳤다. 55%는 그가 업무를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파티게이트와 거짓 해명 등으로 몰리던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사임 전 마지막 지지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영국의 감세안 철회 발표에 파운드화는 강세로 돌아섰다. 산유국 협업체 'OPEC 플러스(OPEC+)'가 오는 5일 회의에서 하루 100만 배럴 이상 감산을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에 유가도 상승세다. 브렌트유는 2.55% 오른 배럴당 87.31달러를 기록했다. 노르디아뱅크 수석 애널리스트 안 폰 게리히는 "시장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좋은 단계"라고 평가했다.

열도 통과 北미사일에 기시다 "폭거"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4일 오전 일본 열도를 통과하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폭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을 논의했다. 마쓰노 히로카츠 관방장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NSC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응을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해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쓰노 장관은 이날 오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며, 특히 일본 열도 통과하는 일본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쓰노 장관은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북한에 항의해 가장 강력한 말로 비판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 정보 전달 시스템인 엠넷(Em-Net)의 속보와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했다. 일본 열도 최북단인 홋카이도와 혼수 최북단 아오모리현 주민에게는 "건물 안에 있거나 지하로 대피하라"는 경보가 내려졌다. 이번 미사일로 일본 선박이나 비행기 등에 관한 피해가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2017년 8월 29일과 같은 해 9월 15일 자국 상공을 통과하자 홋카이도 등 일부 지역 주민에게 대피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4일 오전 7시 23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틀라 1차 투표서 못 끝났다... 30일 결선투표

2일(현지시간)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진영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76) 전 대통령이 자이르 보우소나루(67) 대통령을 제치고 득표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과반 득표에 미치지 못해 두 후보는 오는 30일 결선투표에서 다시 맞붙게 된다. 브라질 선거법원 선거통계시스템 개표 결과에 따르면 룰라 전 대통령은 48.43%,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43.2%를 득표했다. 두 후보의 득표율 차는 5.23%포인트이며 투표수로는 약 618만표 차이가 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개표 70% 직전까지 우세해 선두 자리를 내줄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나 개표 후반부에 판세가 뒤집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앞서 여론조사 결과 및 세간의 전망과 달리 상대를 압도하지 못했다. 브라질 대선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한 후보가 나오면 곧바로 당선을 확정 짓게 된다. 이번엔 1위인 룰라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오는 30일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결선투표에선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와 좌파 정치인인 룰라의 전·현직 대통령 대결, 이념 대결이 이어질 예정이다. 1차 투표에서 군소후보 9명이 얻은 8%의 표심을 누가 더 흡수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룰라 전 대통령은 개표 결과가 거의 나온 시점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우리가 늘 이길 것이라고 늘 생각했다. 싸움은 최종 승리까지 계속되며 그것이 우리의 신조"라고 말했다고 BBC방송이 전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날 투표 결과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깨끗한 선거라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낮은 지지율을 보였던 기간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가 오늘 거짓을 무릎 꿇었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해 68만명 이상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사회적 소수자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룰라 전 대통령은 2003~2011년 재임 기간 복지체계를 구축해 빈민층을 줄이고 중산층을 늘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3) 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한다.

신명기 6:4-5,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왕상 8:60,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 45:21-22,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딤후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은 이 관계를 환상으로 보고, 실체가 아니라(simply an illusion and not real)고 주장한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이 세상에 속죄 제물로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셨고, 성령께서는 이루어 놓으신 속죄 사역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적용시킨다.

양태론은 삼위의 구별된 위격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부인한다.

창세 전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구속의 언약 (the Covenant of Redemption)도 부인하는 양태론은 때

난 자” 즉 그 가정을 다스리는 권세와 리더십을 말한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한다.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 말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위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이 “아들”로 묘사한 것이지 성부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325년 니케아 신조를 (Nicene Creed)를 보면, 독생자가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님을 강조한다. (“only begotten” did not mean “created”).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the Council of Constantinople in 381)에

고, 창조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와 속성에서 성부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성자는 성부에 비해 열등한 존재이며,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in being or attributes—the Son was inferior or “subordinate” in being to God the Father).

3세기 오리겐이 이러한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니케아 회의에서 그의 주장이 거부되었다.

4) 양자론 (Adoptionism): 양자론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

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것을 economy of Trinity 한다)

성경은 존재론적으로는 삼위가 동일하며, 역할에서는 삼위가 차이가 있음을 가르친다.

특히 구속 사역에서 성부 하나님은 구속을 계획 (plan)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께 순종하시어 구속을 성취 (accomplishment) 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 (application)시킨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 (고전 12:3)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며, 성령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다.

삼위일체에서 각 위는 존재와 속성에서는 동일하지만, 피조물과의 관계와 구속 사역에서는 역할의 차이가 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께서 하시는 일에 능력으로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성 삼위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사역적(역할)으로는 역할에서 차이가 있다.

6.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역사상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단 사상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단순화시켜 모든 비밀을 다 이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유한하고 흠이 많은 우리가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절대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오려면 큰 은혜이다. 위대하시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큰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따름이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에게 신비의 세계이다.

루이스 벌코프는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이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지성의 세계를 넘어서는 신비한 교리이다 (the Trinity is a mystery far beyond our comprehension). 역사상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온전히 이해시키려고 시도한 적도 없으며, 다만 교회는 삼위일체 진리에 관하여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기 위해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였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불가해한 영광을 선포한다 (It is the incomprehensible glory of the Godhead).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KHL0206@gmail.com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8)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4)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하기 위한 모든 예화에는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잎 클로바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한다. 그러나 문제는 세 잎 클로바는 각 잎이 클로바의 한 부분이고, 온전한 클로바가 아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 위가 하나님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다. 또한 클로바의 잎은 비인격적이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인격체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나무의 뿌리, 줄기, 가지를 비유로 든다. 그러나 이것들도 나무의 한 부분이지, 전부는 아니다.

물의 형태, 증기, 물, 얼음을 통해 비유를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다. 각 형태에 따라 물의 양과 질이 다르고, 세 형태에 특성이 각기 다르고, 무엇보다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 잘못된 사상이다.

2) 아리우스파 (Arius): 아리우스는 3-4 세기의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신학자이다.

아리우스는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오래전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창조되기 전에는 성자, 성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성부 하나님만 존재하였다”고 주장했다. 성자 예수님이 다른 피조물이 창조되기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다른 피조물보다 매우 뛰어나지만, 그러나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아리우스파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요 3:16) 말에 크게 의존한다. “낳다” (γεννη)는 말은 잉태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피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리우스파는 골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을 근거로 한다. “먼저 나신 이” 의미는 성자가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성령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골 1:15) 의미는 그리스도의 특권과 권리 (the right of leadership or authority)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먼저 나신 이 (πρωτοτόκια)” 이 헬라어는 히 12:16에도 사용되었는데, “처음

서도 재확인되었다.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는 아버지의 본질을 소유하신 하나님 중의 하나님이시며, 빛 중의 빛이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으시고 성부와 같은 본질을 소유하신 (being of one substance, ὁμοούσιον, the same with the Father)”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나으심” 앞에 “만세 전에” (before all ages) 문구를 넣어서 “낳으심”이 영원하며, 예수님의 존재는 영원 전부터 계신 독생자이시며, 창조된 분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러면 우리가 “낳으심, begotten”이라는 성경의 표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 표현이 삼위일체 제 2 위되신 예수님을 성부와 성령과 구별시키는 독특한 타이틀이라고 설명한다.

니케아 신경(Nicene Creed)은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등한 본질”(of the same substance as the Father)을 가지신 분이라고 주장한다. 아리우스와 논쟁에서 교회의 역사에서 매우 유명해진 2개의 단어가 있다. 1) 아버지와 동일 본질 (the same nature), “호모우시오스” (ὁμοούσιος)이며, 그리고 다른 단어는, 2) 유사본질 (similar nature), “호모이우시오스” (ὁμοιούσιος)이다.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하여 아리우스 이단을 물리쳤다. 현대판 아리우스 판이 여호와와의 증인이다.

3) 성자 종속설 (Subordinationism): 성자 종속설은 성자가 영원하지

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세례 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양자로 입양하여 그에게 초능력을 주셨다고 주장한다. 양자론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했다고 한다. 양자로 입양된 후에도 그 본질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신성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독특한 아들이라고 칭하여 존귀하게 되었다.

4.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

1) 만약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구원을 위해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이 된다.

2)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와 경배 찬양,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될 것이다.

3) 만약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신론(Tritheism) 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 계시음을 강조한다. 우리 하나님은 본체에 삼위로 계시고, 이 삼위는 본질과 속성에서 각기 동등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이 삼위는 한 분이시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5.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상 동등하시며, 영광과 권능과 능력도 동일하시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역할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h2>동부(NY, NJ)교회</h2>						<p>뉴욕중앙장로교회</p> <p>담임목사: 허신국</p> <p>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세백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 361-9199, www.mckv.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ar NY 11357</p>	<p>뉴욕부르크렌제일교회</p> <p>담임목사: 이윤석</p> <p>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세백기도: 오전 05:30 성경찬양: 오전 10:00 화,토</p> <p>Tel: (718) 266-2594, www.kcb.org 14 G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새사람교회</p> <p>담임목사: 이종원</p> <p>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 461-2810 (Fax: 경음), (917) 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양무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준성</p> <p>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p>Tel: (718) 662-6611 147-01 38th Ave, Flushing NY 11354</p>	<p>뉴욕센트럴교회</p> <p>담임목사: 김재열</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5:30 (월-토)</p> <p>www.cpcny.org, Tel: (516) 387-9940, 9942 (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저지성도교회</p> <p>담임목사: 허상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창립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백기도회: 오전 5:40 (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베이사이드 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종식</p> <p>경남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 백 기도: 오전 5:45 전교인특별사역예배: 매 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st St, Bayside, NY 11361</p>	<p>빛과소금교회</p> <p>담임목사: 정순원</p> <p>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전 11: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성탄예배 오후 3시20분 세백기도: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 513-1351, cheongsoonw@yah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새벽별주님교회</p> <p>담임목사: 정기태</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회: 오전 6:00 (월-토)</p> <p>Tel: (917) 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p>	<p>은누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문휘</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세백기도: (월-토) 오전 6:00</p> <p>Tel: (845) 359-1458, http://onur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p>	<p>퀸즈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6:00</p> <p>Tel: (718) 886-4040, www.kapcc.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p>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p> <p>담임목사: 김성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세백기도: 오전 6:00 (월-금), 오전 8:30 (토) 금요찬양기도회: 매일 갖게,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p> <p>Tel: (604) 584-5780, www.pcc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브라질 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봉헌</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28-010</p>	<p>브라질 서울교회</p> <p>담임목사: 하경남</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8, Fax: 3209-8043 Rua Joaquim Piza, 281 Camocui S.Paulo CEP 01528-010</p>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p> <p>담임목사: 최광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 114-631-1788, AV. CARABOBA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p>칠레 한인연합교회</p> <p>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시45분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 (주일)</p> <p>Tel & 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토론토 가든교회</p> <p>담임목사: 유문권</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 (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하와이 행복안교회</p>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5:30 (화-토)</p> <p>Tel: (808) 585-1859 1130 N. Lin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하와이 한인교회</p> <p>담임목사: 조일구</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 (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멕시코 현지인 교회</p> <p>담임목사: 임한근 선교사</p> <p>1. 멕시코 번식 선교교수 2. 임야누빌 신학대학 교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 33-36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68)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죄 죽임에 관하여, On Mortification of Sin” (9)

8-5. 죄를 죽이기 위한 9가지 방법

8) 방법8-2: 자신의 사악함을 깨닫고 겸손하라

(3)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성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영광스런 속성에 대해 말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딤후 6:16). 하나님께 접근하여 그분을 볼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

같은 본질 속에서 세 개의 다른 인격이 존재하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성자 하나님의 나심, 성령의 나옴, 그리고 그 둘 간의 차이를 누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괴리감으로 인해 우리는 어둠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분의 온전한 속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그분의 존재 상태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이다. 그런 지식도 육이 말한 것처럼 매우 보잘 것 없다!

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고 순종하면서, 죄를 용서하는 창조자 하나님께 마땅히 드러야 하는 영광과 존귀를 돌리도록 하는 데 있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지식만큼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철저히 변화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다른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영광스럽고 매우 특출한 것이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떤 다른 방법보다 더 명쾌하게 선포되었다. 성도의 탁월한 위치는 그가 많은 진리를 알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짧은 이해지만 그 진리를 구

가) 첫째, 복음의 모든 계시의 의도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데 있지 않다. 복음의 계시는 단순히 믿음, 사랑,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계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둘째, 우리의 마음은 우둔하고 무더서 계시된 말씀 안에 있는 실제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 결론으로, 확실히 하나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빛은 피조물의 접근을 허용치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최선책은 그분의 존재에 대해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가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믿고 경배하는 것뿐이다. 단지 가르친 바대로 하나님에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한 분이심을 고백할 따름인 것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광대하심, 무한하심, 그리고 그분의 영원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말과 개념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뿐이며 우리가 실제로 그것들을 아는 것은 아니다. 실로 우리가 보는 것은 영원함과 무한함의 뒷모습에 불과하다.

(4)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후 5:7). 믿음은 주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통해 생겨난다. 이런 믿음을 통해 우리가 갖는 지식은 여전히 어둠과 매우 작을 것이다. 그러나 이 어둠과 불순종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원의 빛 즉 하나님의 영의 빛 속에서 바라본다는 데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더 이상 호기심 어린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자신에 속한 영혼들에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갠주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모든 필요한 방법을 동원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가르치신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까지 살 수 있게 하신다.

* 그러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의 행용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그 분과 우리 사이에 있는 엄청난 괴리감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 분에 대해 거룩하고 두려운 경외심으로 채워져 모든 정욕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잃지 말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을 경계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당신의 비천함을 알고 당신의 천성이 그분의 본질적인 영광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왜소하다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라.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무엇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교회 내 여성 수련회를 했다. 아이들을 양육하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외출을 감행한 자매에서부터 찢먹이 아기를 키우며 밤마다 아기 울음 소리를 듣다가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참석한 자매, 자녀 양육을 마치고 이제는 손주를 돌보시며 살고 계시던 70대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연을 가지고 있던 여성 성도들의 화려한 외출이 시작되었다. 80년대생에서 40년대생까지 45년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함께 게임을 하며 조별 활동을 통해 오래간만에 크게 웃으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참으로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팬데믹 동안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을 비대면으로 대체하며 살가웠던 사이들이 비대면의 거리만큼 서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수련회를 통해 나이 차를 극복하고 서로를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 관계의 서막함이 많이 해소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이 행사는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진 행사로 꼭 필요한 모임이었다.

삶은 관계망으로 이루어진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부모와의 관계는 성장하면서 친구와 직장 동료 그리고 배우자와 연결되고 그것은 다시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며 관계의 그물로 또 나아간다. 교회 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 가족과 좋은 관계 안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더 생기 있고 자신감 있으며 건강한 삶을 사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좋은 관계는 행복한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버드대 실험이 있었다. “무엇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라는 주제로 1937년에 그 당시 2학년 268명을 대상으로 75년 동안 그들의 삶을 추적하며 연구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해 하버드 의대 정신과 조지 베일런트(George E. Vaillant) 교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어릴 적 사랑받은 경험이 노후에 더 행복한 삶이 되고 노년기의 삶은 결국 우리가 경험한 사랑의 총합이다.”라고 했다. 결국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이미 오래전에 사랑의 명령을 주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마 22:37-39).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이미 아셨기 때문이다.

삶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yanghur@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성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일영양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영양부: 매주(목) 오후 4:00-7:00 Tel: (773) 821-1112, estrosos@yahoo.com 68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8200 Morris Rd, Lansdale, PA 193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47	벨렐교회 담임목사: 백선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디어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휴식: 휴일, 종교개혁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748
새생명안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오 배: 오전 11:00 E M 배: 오후 7:00(목) 새 배 배: 오전 6:00(화/목/토) 구역 배 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 교: 오전 10:20(주일) Tel: (850) 423-9700, Cell: (213) 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 오 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920-9049, www.jej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ershr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 5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오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laccnkrcc.com 9424 S. Yelko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지혜있는 자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그 어느 때든지 날씨가 가물면 사람들은 걱정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올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아무리 가물어도 때가 되면 어렵히 알아서 하나님이 비를 주실까... 땅이 갈라지고 곡식이 타들어 가도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도 당장 비를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후자는 "정말 비가 안 오면 어쩌나? 큰 일이다.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안절 부절하고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지혜로운 모습은 염려를 믿음으로 다스리고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사람이다. '과연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라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오늘 '지혜'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잠언 9:10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할 분을 경배하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지식이야 책을 많이 읽고, 인터넷을 잘 검색하면 채울 수 있겠지만, 지혜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혜는 삶의 경륜이 쌓이고,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고, 무엇보다 믿음의 씨름을 차곡차곡 해 나간 결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만약 지혜와 지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지혜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혜를 선택한 자의 지혜의 행동은 무엇일까? 우리는 에베소서 5:15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고 말한다. 즉, 어떻게 행할

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행동,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이다.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본능이 끌리는 대로 살아간다. 먹는 것 좋아하고, 자는 것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는 본성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본능을 거스르며 사는 것보다 훨씬 쉽다. 영혼의 본능도 마찬가지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사는 것이 영혼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하고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잘못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울사도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 하고 권면한다.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 술에 취하여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술에 취하든, 돈에 취하든, 권력에 취하든, 먹는 것에 취하든, 그 어떤 것이든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그 욕망을 채우려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곧 지혜 있는 자의 삶이기 때문이다.

무언가에 취해서 산다는 것은 아마도 마음에 빈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술에 취하는 것은 내 마음의 빈 구석을 무엇으로 채울지 알지 못하여 술로라도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돈에 취하는 것은 허전한 내 마음을 돈으로라도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무언가로 내 빈 구석을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타깝게도 채워지지 않는다. 마음의 빈 구석, 허전한 마음을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한 분,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 빈 구석이 채워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될까?

세 가지를 말하고 싶다.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다. 찬송은 인

간의 입술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다. 입술의 찬송을 넘어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주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감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그러니 가장 지혜로운 행동인 것이다. 복종은 내가 못나서 하는 행위가 아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당당하기에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이다. 복종을 통하여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찬송과 감사와 복종을 실천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이로 인하여 주님 주신 지혜를 소유한 삶,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메마른 가뭄이 온다 해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한다.

wmclakim@gmail.com



김라니 목사 에세이 출판감사에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김라니 목사 에세이 출판감사에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김라니 목사(메시아 폴리스트 앙상블 이사장) 에세이 '이제는 부르리 바람의 노래를' 출판감사에배가 9월30일(금)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친교실에서 가졌다. 김라니 목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판감사 에배에 참석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저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가 될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다"고 말했다

다. 박희성 목사 사회로 시작된 1부에는 조현영 목사(큰빛교회) 개회기도, 한기홍 목사 말씀, 메시아 폴리스트앙상블(지

휘 박성근) 특송, 추원호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정건오 집사 사회로 열린 2부 출판축하기념회는 저자 가족소개 및 내빈소개가 있었으며 탐 브룸필드 박사(냅시모어 신학교 총장), 폴홍 박사(냅시모어 신학교 이사장), 인신기 박사(한사랑교회), 성경교 남가주교역자회 회장, 김미옥 부장(한국일보), 김은성 국장(미주복음방송), 김주연 아나운서(미주복음방송) 축사가 있었다. 이어 정화미 선교사(수필가)가 축사했으며 안신기 박사가 서평, 홍용표 박사가 격려사 했으며 오우영 목사가 축가를 불렀으며 정태호 목사가 폐회기도했다. 이어 열린 3부순서는 베이스 이사호 단장(메시아 폴리스트 앙상블)이 축가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기쁜우리교회 한가을밤의 음악회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한가을밤의 음악회가 10월1일(토) 오후 7시에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소프라노 이영주, 알토 심현정, 테너 백동휘, 베이스 이정욱이 한국가곡, 오

페라 아리아, 성가곡을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LA 챔버 과 이어가 'You are the Christ',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등 찬양곡과 가곡 '내 맘의 강물'을 불러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기쁜우리교회는 "그동안 펜데믹으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아름다운 선율을 나누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달라스연합교회 2022년 가을부흥사경회

"천국소망이 항상 바라보아야 할 참소망"

달라스연합교회 2022년 가을 부흥사경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의 환난을 견뎌야 할 이유와 소망'이라는 주제로 9월30일(금)부터 10월2일(주일)까지 이강평 목사(서울 예수사랑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요한 목사 사회로 시작된 첫날 저녁집회는 석시호 장로가 기도했으며 이강평 목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벧전 1:1-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강평 목사는 "세상적인 것은 참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들에게 필요한 참 소망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

해야 한다. 참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천국소망이 우리들이 항상 바라보아야 할 참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목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 모두는 천국복성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고통으로부터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목적이 있고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천사들 사탄에게까지 숨겨두신 사실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평 목사는 "하나님께서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위해 성결하게 예비된 준비물이 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옮김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이요한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달라스연합교회에서 열린 2022년 가을부흥사경회에서 이강평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2년 가을학기 수업일정

8월 22일-10월 16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inistry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상황화)

10월 17일-12월 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사역을 위한 문화인류학)

2023년 봄학기 수업일정

1월 9일-3월 5일
DI 8280 Doctoral Research Methods (사회조사 방법론/논문작성법)

3월 13일-5월 7일
DI 8410 Spiritual Conflicts (영적 치유)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Drew Flamm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19회 정기연주회 “여인들의 새 노래”
 불우이웃돕기 및 선교기금모금 음악회를 위한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이은숙 권사) 제19회 정기연주회가 10월 9일(주일) 오후 6시에 뉴욕신광교회(담임 강주호 목사)에서 열렸다.
 주소: 뉴욕신광교회 33-55 Bell Blvd, Bayside, NY 11361
 ▲문의: 917-658-3181, 917-648-1876

뉴욕하은교회 사역자 (KM 부교역자, 유아부 전도사) 청빙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하은교회에서 KM 부교역자 1명, 유아부 전도사 1명을 청빙한다. 지원자격: 신실하게 팀 사역에 동참할 사역자, 신학대학교 졸업 또는 재학 중인 전도사/목사 담당사역: KM 부교역자: 행정 및 교구 담당 지원, 영아유치부 전도사: 주일학교 사역, 교사와 학부모 관리 대우: 풀타임, 하프타임, 파트타임 사역 / 취업 또는 영주권 스폰서 논의 가능 제출서류: 이력서, 인터뷰 후 추가서류 요청 가능(모든 서류 PDF 파일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교회 웹사이트: http://haeunchurch.org
 ▲문의 및 제출처: gus.kim@graceny.org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위치한 미국장로교회(PCA) 소속 제일장로교회는 지난 46년 동안 지역사회와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섬겨온 교회로서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 위에서 바른 성경적 리더십과 복음적 열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담임목사님을 청빙 한다. 지원자격: 1) 정규대학 및 PCA가 인정하는 신대원(M.DIV) 졸업자 이상 2) PCA 교단 가입 가능한 자 3) 미국에서 10년 이상 건강한 담임목회 사역 경험자 4)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로 이중언어(한국어와 영어) 가능한 자 제출서류: 이력서(사진포함),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구원과 목사로서의 소명과 사명에 관련 내용”(한글과 영문), 가족소개 - 대학(B.A) 신대원(M.DIV) 혹은 그 이상 학력 증명서(성적증명서) - 추천서 2부(동료목회자 1부, 노회 혹은 신학기관 1부) - 최근 설교 동영상 Link 또는 File E-Mail (영어설교가 가능한 분은 영어설교 추가) - 목회 계획서 제출 및 마감: 2022년 10월 31일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atlkfpcinvite@gmail.com)
 ▲문의: 천경태 장로 678-362-7788

2022 스탠포아일랜드교협 연합부흥성회
 스탠포아일랜드교협 연합부흥성회가 “말씀 목상이 길입니다”라는 주제로 10월 20일(금)부터 22일(주일)까지 3일간 뉴욕성결교회(담임 이기은 목사)에서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담임)를 강사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열린다. ● 10월 20일(금) 오후 8시 “위대한 말씀” (창 12:1-4) ● 10월 21일(토) 오후 8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마 28:19-20) ● 10월 22일(주일) 오후 5시 “사도행전 구하기” (행 1:8) 장소: 뉴욕성결교회 333 Arden Ave. Staten Island, NY 10312
 ▲문의: 김경환 목사 917-817-6897, 이기은 목사 347-850-5188

뉴욕능력교회 창립30주년 감사예배
 뉴욕능력교회(담임 서민호 목사)가 창립 30주년 감사예배를 10월 9일(주일) 오전 11시 30분에 드린다. 주소: 40 Crescent Place, Yonkers, NY 10704
 ▲문의: 서민호 목사 201-983-1157

아스토리아한인교회 청년부 사역자 청빙
 아스토리아한인교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청년 전도, 돌봄, 예배 인도, 성경공부를 담당할 청년부 사역자를 청빙한다. 지원자격: 신학교 졸업 및 재학 중이며 신학교와 관계없이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청년 사역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도 가능.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이력서)와 신앙 간증 (이메일로 접수) 교회사이트: astoriakumc.org 교회주소: 아스토리아한인교회 30-44 Crescent St. Astoria, NY 11102
 ▲문의 및 접수: seongin@gmail.com



퀸즈장로교회 바자회 중 친교실에서 중국교포부가 사진촬영을 했다

퀸즈장로교회 가을 건축대바자회 “맛있는 바자” 열려

허리케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세대, 다민족이 함께한 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온 교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1일(토)에 새 성전 건축 모금을 위한 “가을맛이 건축 대바자회”를 열었다. 매년 두 번의 바자회를 가져온 바 있는 본 대바자회는 3주 전부터 매주 토요일에 각 선교회 별로 준비한 음식들과 물품들을 판매하는 소바자회를 가져왔으며 이날 대바자회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바자회는 “맛있는 바자”라는 주제로 각종 김치, 반찬, 식사류 등 다양한 음식들과 물품들을 판매했다. 각 선교회별로 판매할 음식 메뉴와 물품들을 정리하여 판매했으며, 청년부에서는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를 통해 모금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바자회는 복잡한 허리케인 이안의 영향으로 행사 전날 이미 하루 종일 비가 올 것으로 일기예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진행됐다. 교회에서는 이날 오전에 대비하여 교회 주차장 전체를 천막으로 덮는 작업 및 내부 조명작업을 통해 비바람이 주차장 내부로 덮치지 않도록 하여 오히려 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바자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교회 방문자들 외에도 외부 배달을 진행하여 원하는 음식들을 배달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기도 했다. 날씨가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등부, 청년부 등 젊은 부서로부터 80대까지 포함한 각 선교회와 영어예배부, 중국어예배부, 러시아어예배부가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한 뜻깊은 바자회가 됐다. (김재상 기자)



저녁집회에서 거리 전도팀이 찬양하고 있다

뉴욕교협, 뉴욕전도집회 개최

강사 김성완 장로, 저녁집회 및 거리전도 진행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은 '2022 뉴욕전도집회'를 지난 9월 29일(목)부터 10월 1일(토)까지 하크네시아교회에서 김성완 은퇴 장로(와싱턴장로교회)를 강사로 9월 29일(목), 30일(금) 2번의 저녁집회와 9월 30일(금), 10월 1일(토) 오전에 플래시, 맨하탄 거리전도로 진행했다. 저녁집회는 인도 공동 준비위원장 전광성 목사와 허은준 목사, 경배와 찬양 하크네시아교회와 주찬양교회 찬양팀, 기도 이기은 목사와 강영택 목사, 성경봉독 장철호 장로(뉴욕새생명장로교회)와 이주수 장로(롱아일랜드성결교회), 특송 맨하탄 선포의침 전도팀과 M GMC 맨하탄 전도팀, 간증설교 김성완 장로, 헌금송 뉴욕기독교여성합창단과 조동현 장로, 헌금기도 이광모 장로와 이주익 장로, 광고 임영건 목사, 하정민 목사, 축도 손한권 목사, 신현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완 장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주제로 간증 설교를 했다. 김 장로는 둘째날 저녁 간증 설교에서 “오전에 전도팀과 함께 시내 거리 전도에 동참하며 큰 감동을 가졌으며 초대교회의 성령충만 가운데 예루살렘 근경, 골목길에 몰아치는 성령의 바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음식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음식 같은 소리로 들렸으며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뉴욕교협은 이번 전도집회를 끝으로 48회기를 마무리했다. (김재상 기자)

뉴저지동산교회, 제11회 가을밤의 콘서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뉴저지동산교회(담임 윤명호 목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라는 주제로 제11회 가을밤의 행복한 찬양 콘서트를 9월 25일(주일) 오후 5시에 개최했다. 음악회는 교회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했다. 하지만 현장 참가자에게는 각종 선물을 증정해 팬데믹은 이제 끝났음을 선포했다. 윤명호 목사는 “신실하게 우리 삶을 불태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다. 또한 전도에 대해서도 나누며, 음악회 도중에 ‘사영리’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다. 윤 목사는 “전도는 특권”이라며 “전도의 미려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을 소개했는데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신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주변 이웃과 친구를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들인 바리톤 이요한, 베이스 박영광, 테너 유우영, 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아넛넷)

문석호 목사 사역 50주년 기념 및 저서발간 감사예배

저서 “그리스도인의 변명” 발간, 베들레헴 영성수련원 계획

문석호 목사 사역 50주년 기념 및 저서발간 감사예배가 9월 25일(주일) 오후 5시 뉴욕 베데스다교회(담임 김원기 목사)에서 열렸다. 행사는 뉴욕 교협(회장 김희복 목사)과 뉴욕교연(회장 유상열 목사)이 후원했다. 문석호 목사는 1973년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의 길에 들어섰다. 학자의 길을 걸어 총신대학교, 연세대신대원, 오하이오주립대,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풀러신학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학교에서 학위들을 받았다. 문 목사는 호신교회에서 청소년 담당 목회를 하다 1985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1987년 한국으로 돌아와 총신대학교 교수와 교목실을 통해 비바람이 주차장 내부로 덮치지 않도록 하여 오히려 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바자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교회 방문자들 외에도 외부 배달을 진행하여 원하는 음식들을 배달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기도 했다. 날씨가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등부, 청년부 등 젊은 부서로부터 80대까지 포함한 각 선교회와 영어예배부, 중국어예배부, 러시아어예배부가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한 뜻깊은 바자회가 됐다. (김재상 기자)



문석호 목사 사역 50주년 기념 감사예배 후 참석자들이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강원근 목사(우)와 정은범 선교사(좌) 부부가 사진 촬영을 했다

뉴감 50주년 성회, “전도에 대한 오해들”

정은범 선교사, 스리랑카 3단계 사역 소개

뉴욕감리교회(강원근 목사)가 50주년 기념 부흥집회를 9월 23일(금)부터 25일(주일)까지 가졌다. 본 부흥집회의 강사는 뉴욕 감리교회의 후원 선교사인 스리랑카 정은범 선교사였다. 뉴욕감리교회는 스리랑카에 유치원 교사 봉급, 학교 장학금, 보육원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온 바 있다. 첫날 집회에서 강원근 목사는 “영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오셨다”라며 강사를 환영했다. 5년 전에도 뉴욕감리교회에서 선교부흥집회를 인도한 바 있는 정은범 선교사는 감신대를 졸업하자마자 스리랑카에 가 26년째 한 우물을 파고 있다. 강원근 목사는 발전해 온 정은범 선교사의 3단계 사역을 소개했다. 1 단계는 스리랑카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사역, 2단계는 시각 장애인 사역이나 마약중독자 사역 등 특수사역이었다. 지금은 3 단계로 현지 목사들 훈련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선교사는 금요일 저녁에는 “부르심의 이유”(마가복음 3:13-15), 토요일 새벽과 저녁에는 열왕기하 22:1-11 등 여러 본문으로 “부르심의 오해”, 주일에는 “수직적 선교”(마태복음 1:1, 역대상 6:27-28)와 “좋은 것과 필요한 것”(빌립보서 1:20-26)을 주제로 설교했다. 뉴욕감리교회는 50주년을 맞아 10월 9일(주일)에 5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리: 김재상 기자)

소프라노 조한나, 피아노 주형미 등이 출연하여 솔로 또는 듀엣, 그리고 모두가 함께 찬양



조한나, 유우영, 이요한, 박영광이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있다

피종진 목사 10월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제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영어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 (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 (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2(주) 저녁 원주 가곡교회 (이종만 목사) 010-9731-7077
 3(주) 저녁 군산 열기교회 (원장 송영선 목사)
 주회: global 부흥회의 (대표회장 정태은 목사) 010-2296-0675
 4(화) 오후 중북 교산 예배당 (원장 이은숙 목사)
 주회: 노헤미야부흥사 (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제 226차 해외성회 (226th Overseas Assembly)
 5(수) 미국 (USA) LA,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 (대표회장 이선자 목사) (714) 220-7660
 6(목) 미국 (USA) 미주서부지역 1 Pray for all Nation (세기모, 미주서부지역총회 김영구 목사) (310) 404-6219
 7(금) 미국 (USA) 미주 예루살렘 (성진구 목사) (213) 590-9191
 8(토) 미국 (USA) LA acquaintance MT
 9(주)~ 9.11 미국 (USA) 오렌지 한인교회 (피세원 목사) (949) 636-1558
 9(주) 저녁 미국 (USA) LA OC 남가주기도대성회 (주최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선자 목사 ☎ (714) 220-7660
 10(월) 미국 (USA) 남가주 Kamlim World Prayer Center (원장 김은목 목사) (213) 249-2467
 11(화) 미국 (USA) 남가주 Knapp Seymour University (총장 Tomas Vrupild)
 12(수) 미국 (USA) American West College & University (목회자 세미나) (이사장 송용복 박사 행정총장 심진구 박사) (213) 590-9191
 13(목) LA 총합 KE012 2330 - 인연 도약 15(토) 0450
 15(토) 오전 인천소망교회(황귀래 목사) 010-4423-2838
 15(토) 오후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단장 송영선 목사)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단장 송영선 목사) 장소: 대우대 헬원수업관 (원장 김우경 목사) 010-8998-9141
 16(주) 오전 서울 임마누엘교회 (장요한 목사) 010-2393-0616
 17(월) 오전 제5회 전국여성성지자전전퍼런스 장소: 서울프레스센터 20층 주회: 한국기독교여성선교회 (고문 박종자 장로 회장 최금숙 교수 발행인 김화숙 목사) 010-5591-2325
 18(화) 오후 이천 글로벌교회 (강은숙 목사) 010-3670-8999
 19(수) 저녁 서울 강남 반석기도원 (남보석 목사)
 20(목) 오전 한인 Miracle International Mission Center (대표회장 김익수 목사) 010-9082-9030 아산 새생명교회 (김수아 목사)
 20(목) 오후 서울 영락교회 선교센터 주회: 한미연합부흥성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기범 목사 010-2238-3999
 23(주) 저녁 대전 주안장로교회 (전정순 목사) 010-7292-3377
 24(월) 오전 KAICAM 목사 안수식 (연합회장 김승욱 목사) 장소: 분당 할렘루아 교회 (02) 3673-1323-5
 24(월)~26(수) 제주 컨퍼런스 주회 한국교회예배예비복음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이사 김기성 R 010-5270-7105 장소: 제주 삼해인 관광호텔 인사대학교 연세동문 목회자의 날 장소: 연세동문회관 3층 대안 위대한학교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www.nsca.or.kr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2022 다민족기도대회 성황리에 열려

“명실상부한 다민족이 하나 되어 뜨겁게 찬양과 기도”

2022 다민족기도대회가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회 주관, 청교도신앙회복운동본부, OC교협, 자마, 미주성서화 운동본부, KACC, 은혜한인교회 공동주최로 10월2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주님께로 돌아가자(Return to the Lord)’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GMI & Elim 연합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강순영 목사(준비위원장)와 김우준 목사(토렌스주 은교회) 사회로 열린 이날 기도회는 심상은 목사(공동준비위원장)가 개회기도했으며 한기홍 목사(대표대회장)가 환영 인사했다. 한기홍 목사는 “이번 다민족 기도대회는 미국 중 간선거를 앞두고 열리게 되었다”며 “우리가 사는 이곳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친동성애 교육을 펼치는 등 도덕적으로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등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한 목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있으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을 주시겠다고 하셨다”고 힘주어 말했으며 그의 말이 마칠 때 은혜한인교회에 모인 모든 민족들이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이날 기도회는 4개의 기도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일본, 백인, 흑인, 유대인 교회공동체들로 구성된 기도그룹1에서는 월마 배리 목사(Azusa Street Mission)가 ‘다시한번 아주소거리 부흥을!’, 데이비드 밴 목사(Vietnamese Alliance Church at Miway City)가 ‘하 나님께로 돌아오라’, 가렛 & 엘리사 리처드 목사(The Rock Seal Beach)가 ‘교육의 회복, 다음세대’, 로버트 울프 랍비(Majestic Glory Ministries)가 ‘예루살렘의 평화와 이스라엘



2022 다민족기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의 회복’, 료헤이 카와노 목사(Japanes Evangelical Missionary Society)가 ‘화합과 용서’, 강순영 목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승리와 종식’ 등의 제목으로 기도했다.

히스패닉 교회공동체로 구성된 기도그룹2는 엘림찬양팀이 찬양인도했으며 조지 푸엔테스 목사(Ilesia De Christo Ministrios Elim)가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한인교회공동체들로 구성된 기도그룹3은 박성규 목사(공동대회장)가 도전의 말씀을 전했다며 민경엽 목사(공동대회장)가 ‘회개’,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가 ‘부흥’, 오운태 목사(순무브먼트)가 ‘다음세대 부흥’, 샘한 목사(자마, 은혜한인교회)가 ‘가정과 교육회복’, 샘신 목사(KACC)가 ‘미국의 리더십과 선거’ 등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했다. 찬양 가수 예보니 올리보 특송에 이어 진행된 기도그룹4는 이번 다민족기도대회의 모체가 되었던 11/11/11의 데이비드 안드레아드 목사(Executive Director of A Line in the Sand)가 도전의 말씀을 전했다며 울프강 코바체크 목사와 A Line in the Sand 팀이 기도인도했다. 이날 기도대회는 은혜한인교회 연합성가대가 할렐루야를 부른뒤 송정명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번 다민족기도대회는 그동안 지적되어왔

던 인연 동원면에서 가장 다민족기도대회의 취지에 맞게 다민족이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22 밀알의 밤에서 선예 자매가 간증하고 있다

2022 밀알의 밤 성로, 수임금 전액 장학금으로 사용

“자기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선교현장”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22 밀알의 밤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9월 30일(금)부터 10월2일(주일)까지 열렸다.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린 마지막 날 밀알의 밤은 밀알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노창수 목사 환영의 말씀, 수어찬양팀 찬양, 밀알선교단 장학생 영상 소개로 이어졌다.

이날 메인 게스트로 전 원더걸스 멤버로 그룹에서 리드보컬을 맡았던 선예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19세에 걸그룹으로 데뷔해 인기 정상에 올랐지만 마음은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갈등에 시달렸으며, 특히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의 세 가지 근본적인 물음이 있었다.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죽음, 부활에 대한 영적인 발견을 통해 오랜 세월 자신을 짓눌렀던 아픈 상처와 갈등이 말끔히 치유됨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또한 그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중 2011년 큰 지진으로 폐허가 된 아이티로 구호활동을 떠나게 되었고, 선교지에서 만난 제임스 박 선교사와 결혼해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라고 그동안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진솔하게 나누었다. 또한 선예는 로마서 5:8절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

대화로 열렸다.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열렸던 다민족 기도대회는 대다수의 한인들과 극소수의 타민족이 모여 드러졌었기에 과연 다민족기도대회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만 이날 기도대회는 주최와 주관은 한 한인교회단체와, 백인교회, 흑인교회, 히스패닉교회, 일본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유대인 크리스천 공동체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한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명실상부한 다민족이 하나가 되어 뜨겁게 찬양과 기도를 드린 대회로 평가되었다. 찬양역시 은혜한인교회 찬양팀과 히스패닉 교회인 엘림교회 찬양팀이 연합으로 찬양인도를 했으며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찬양을 불렀다. (박준호 기자)

이 여기까지 온 것은 인간적인 재능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라며 “이제 세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을 돌보아야 하기에 멀리 선교활동은 할 수 없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선교현장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채 이웃을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날 밀알 장학생 소개 영상으로 출연한 정요한 학생(바이올라대학교, 성악전공)은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삶으로 참석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 주었고, 올해도 바쁜 일상 속에서 수어찬양곡 ‘주의 도를 버리고’를 열심히 연습해 최상의 아름다운 공연을 선보인 ‘남가주밀알수어찬양단’ 역시 진정한 장애인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일깨워 주었다.

2022 밀알의 밤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2023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수여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장학생 선발 과정과 장학금 수여식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작으나마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9월30일은 ANC온누리교회에서 그리고 10월1일은 남가주세누리교회에서 밀알의 밤 행사가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TVNext 어린이 성경체성 수호 행사

TVNext(대표 김태오 목사, 세라 김 사모)는 어린이 성경체성 보호를 위한 대회를 8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정오)까지 에나하임컨벤션센터에서 갖는다.

▲ 문의: Tvnex.org@gmail.com

예장 백석 캘리포니아노회 목사안수식

대한 예수교 장로회(백석)캘리포니아노회(노회장 연제선 목사) 목사 안수식이 16일(주일) 오후 5시 올림픽 장로교회(담임 이수호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목사 안수식은 송준현 강도사, 백주는 강도사, 전제성 강도사, 박은진 강도사, 전제광 강도사가 목사안수를 받게된다.

▲ 문의: (818)983-9024

오렌지한인교회 가을 1일 부흥회

오렌지한인교회(담임 피세원 목사) 가을 1일 부흥회가 9일(주일) 예배시간에 갖는다. 강사는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원로)

▲ 문의: (714)871-8320

코너스톤교회 2022 커넥션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는 2022 커넥션을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개최한다. 19일오후 7시30분에는 커넥션 선교사 파송예배를 갖는다.

▲ 문의: (310)530-4040

달라스교협 주최 부흥성회

달라스교회협의회(회장 기영렬 목사) 주최 부흥성회가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개최된다. 일정은 14일(금) 오후 7시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 15일(토) 오후 7시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 16일(주일) 오후 6시 영락장로교회(담임 명치호 목사)

▲ 문의: (972)446-0178, (972)258-0991, (972)424-5400



큰빛교회 창립 23주년감사예배에서 조현영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큰빛교회 창립 23주년감사예배

“예배가 내 인생의 지성소, 예배에 성공해야”

큰빛교회(담임 조현영 목사) 창립 23주년 감사예배가 2일(주일) 11시에 열렸다. 조현영 목사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김현직 장로가 기도했으며 민병열 목사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황준호 장로가 성경봉독했으며 생명샘 찬양대(지휘 노상철 목사)가 찬양했다. 이날 조현영 목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사 60: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현영 목사는 “큰빛교회가 23년 동안 묵회하면서 첫째 예배에 집중했다. 예배가 내 인생의 지성소이며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다. 둘째 개척 때부터 선교에 집중했다. 선교가 교회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 셋째 2세 교육에 집중했다. 이민교회

가장 큰 사명중 하나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이기에 할 수 있는 한 신앙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게 했다”며 “그 결과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큰빛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큰빛교회가 조국의 복음통일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예수 안에 하나 되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되기 바란다.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홍섭 장로가 연혁보고 했으며 영상으로 나경희 선교사(캐나다)와 문춘기 선교사(태국)의 격려사가 소개되었다. 그리고 주광옥 교수와 조안숙 사모가 듀엣으로 특송했다. 이날 예배는 본 교회 성령구원로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사우스베이에벤에셀교회 10월 부흥회에서 지명현 목사가 찬양하고 있다

사우스베이에벤에셀교회 10월 부흥회

“성도는 거룩한 무리, 가장 큰 사명은 찬양”

토렌스에 위치한 사우스베이에벤에셀교회(담임 최경철 목사)는 10월 부흥회를 소리엘 지명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2일(주일) 오후 1시에 가졌다. 최경철 목사 인도로 시작된 이날 부흥회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가 강사로 나서 간증 이 담긴 말씀을 전했다.

지명현 목사는 “성도는 거룩한 무리이다. 가장 중요한 사명은 찬양이다. 예배에서 찬양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찬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인이 살아온 세월에 대하여 간증했다. 그는 “나 자신이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때 좋은 친구를 만나 예수를 믿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 많은 선교지를 다니며 말씀과 간증의 집회로 나아가게 되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간증의 이

어 지 목사는 창 49:22을 바탕으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야곱은 복을 구하는 자였다. 야곱에게서 가장 본받을 점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이라며 “야곱의 축복에서 발견하는 비결은 섬 곁에 심어진 가지가 되는 것이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그럴려면 예수께로 나아가야 한다. 복된 삶을 살뿐만 아니라 나누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지명현 목사는 ‘사랑하는 자여’, ‘성도여 다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그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야곱의 축복’, ‘구하라 주실 것이요’ 등 찬양을 교인들과 함께 불렀다. 이날 예배는 최경철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제39회 연례 기금 모금 행사 성황

고(故) 이희숙 대표에게 레거시상(Legacy Awardee) 수여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가 지난 22일 저녁 7시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California Science Center)에서 제 39회 연례 기금모금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올해 기금모금 행사명은 ‘Close to Home’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한인들을 위한 또 하나의 집이 되겠다는 취지로 열렸다. 이날 기부금 후원과 현장기부를 통해 약 19만 달러가 모금되어 한인가정상담소를 위한 후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실감케 했다. 한편 설립 39주년을 맞아 ‘

북창동 순두부’(BCD Tofu House) 창업자이자 한인가정상담소 이사를 역임하며 오랜 기간 한인커뮤니티를 위해 후원한 고(故) 이희숙 대표에게 레거시상(Legacy Awardee)을 수여하였다. 또한 AAPI 앰배서더상(AAPI Ambassador Awardee)은 미나리 출연배우가 시상하였다. 에스터 문 우 배우는 한인가정상담소 위탁가정 및 심리상담부서에 과거 재임하며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인가정상담소 이사진

캐서린 염 소장은 “후원자 분들을 모시고,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한인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보내주시는 사랑과 후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졌는지 보여드리는 자리였다”

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과 각박한 이민 사회에서 희망을 이어가는 한인 가정을 돕는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JMS 교주 정명석, 다시 구속 기로

여신도 상승준강간 혐의, 피해자측, 5명 추가 고소 예정

과거 여신도를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살았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77)씨가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정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5명은 추가 고소 방침을 밝혔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씨는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다. 한편 JMS 신도였던 A씨와 B씨는 지난 3월 정씨가 신도 성폭행 등의 죄로 법원으로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한 직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하며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정씨를 상대로 몇 차례 소환 조사를 벌인 충남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정씨에게 상승준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전지검

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정씨는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재차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JMS 측은 "전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왜곡·과장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도현 전 엑소더스 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씨가 출소한 직후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리라 충분히 예상했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음란 동영상도 세간에 떠돌아다닌다고 하니 그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엑소더스는 정씨와 그의 사고 집단인 JMS에 피해를 당한 이들의 모임이다. 엑소더스 측은 법원에 정씨의 구속을 강력히 촉구하며,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과 한국인 피해자 5명 이름으로 정씨를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씨가 그동안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 형사고소를 주저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전 대표는 "JMS에 있어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난 여성은 집중 포고 대상"이라며 "이번 추가 피해자들은 빠르면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그리고 외국에서부터 포섭돼 정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JMS 측은 이런 혐의가 불거질 때마다 내부 신도들에게 전부 다 모함이라고 속이며 교육한다"며 "조직 수뇌부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정씨를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씨는 이번 고소에 맞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신도, 변호인 등 10여명과 함께 심문 1시간여 전 일찌감치 법원으로 들어가 취재진을 따돌렸다.

기침, 이·취임 예배... 김인환 총회장 "치유·회복 디딤돌 될 것"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교단 공과... 모든 교회 무료 제공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김인환 목사)는 4일 경기도 안성 함께하는교회에서 112차 총회, 78대 의장단의 이·취임 감사에 배를 드렸다. 이·취임예배에선 직전총회장인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존귀한 가치를 합당한 삶"(엡 2:10)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총회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가치로 만드신 이유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침례교회를 위해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매진할 때"라고 말했다.

고 목사로부터 취임패를 받은 김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역사는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썩어질 밀알로 섬기며 헌신의 길을 걸어가겠다"며 "하나님의지혜로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했다.

고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읍(대전은포침례교회) 1부총회장과 강명철(산양침례교회) 2부총회장을 통해 교단을 위해 헌신할 뜻을 전했다. 김 총회장은 예배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보다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다양한 이유로 인한 갈등들이 있다.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면 성령께서 하나님께 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총회 이후 이날 예배까지 약 보름간 진행된 일도 설명했다. 김 총회장은 "교단 안에도 보이지 않는 갈등의 요소가 있었는데 이를 뛰어넘기 위해 집행부 임원단을 구성했다"며 "갈등을 가졌던 분들

과는 지속적으로 만나며 의견을 교환했다. 총회가 하나 되는데 에너지를 모으고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희망을 봤다"고 전했다. 취임 후 수행하는 첫 사업도 소개했다. 김 총회장은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교단필이 완료됐다. 내년 첫학기부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에 무료로 보급하기로 결정했다"며 "공과 외에도 총회 차원에서 수련회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 시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치로 드러난 고교 기독교 동아리 효과 긍정 평가

기독교 동아리 실태 조사... 71% 동아리 덕 기독교인 돼

기독교 동아리가 학생들의 신앙생활과 전도에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동아리에 있는 학생 10명 중 8명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고 평가했고 믿지 않고 동아리에 가입했다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학생도 있었다.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재단인 더작은재단(대표 오승환)은 지난 7월 전국 고등학교 교사 320명과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한 고등학교 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4일 밝혔다.

오승환 대표는 "기독교 동아리는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재단은 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는 '스쿨처치 운동'을 펼치고 있다. 조사는 지앤컴리서치가 더작은재단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월 1~20일 진행했다.

재단에 따르면 학생들은 친목이나 심리적 이유보다 '신앙' 때문에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했다. 기독교 동아리에 참여한 이유로 첫 손에 꼽은 건 '기도(예배)' 드리고 싶어서(27.8%)였다. 2순위로 꼽은 것까지 합하면 절반에 가까운 49.2%가 기도와 예배를 위해 동아리에 가입했다.

'전망·위험하고 싶어서'(18.3%), '심리적 안정을 찾고 싶어서'(11.1%)와 '성경·신앙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20.6%)가 뒤를 이었다. 눈길을 끄는 건 친구를 중요시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이 기독교 동아리 활동에 영향을 줬다. '친구·선배와의 친목 도모' 때문에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했다는 응답률이 1, 2순위를 포함해 28.6%나 됐다.

기독교 동아리 활동이 자신의 신앙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83.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큰 도움이 된다'가 32.5%,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가 50.8%였다. 특히 1학년 75.9%, 2학년 82.1%, 3학년 87.9%로 나타나고 학년일수록 긍정적으로 기독교 동아리를 봤다. 도움이 안 된다고 답한 학생은 8.7%였다. 학생들이 기독교 동아리에 만족하는 이유는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점이 33.6%로 가장 많았다.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깊어진다'(22.4%), '심리적으로 안정을 준다'(18.1%), '교우 관계가 좋아짐'(16.5%)도 만족의 이유였다.

를 이끌어 갈 사람이 동아리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고 진단했다.

동아리 담당 교사가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중복응답)으로는 '동아리원 모집'이 56.1%로 가장 높았고 '활동 프로그램 부족'(46%)도 어려움 중 하나였다. 눈길을 끄는 건 세 번째로 많이 꼽힌 '교내의 부정적 인식'(37.4%)이었다. 특히 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교내의 부정적 인식'을 많이 꼽아 동아리를 이끄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신대 김성중 기독교교육과 교수는 "교회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아이들은 학교에 있다. 한국교회가 학교에 들어가야 할 때"라며 "기독교 동아리는 교회와 기독교 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관계 전도에 귀중한 창구가 되는 만큼 지금부터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독교 동아리가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78.6%는 가입 전부터 믿음이 있었지만 나머지 21.4%는 종교 불문 신앙이 없었다. 이들 중 7.1%는 '동아리 활동으로 기독교를 믿게 됐다'고 응답했다. 동아리를 이끌고 있는 교사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동아리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줄 재량 있는 교사'(16.6%)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학생'(16.0%)이 나란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재단은 기독교 동아리



유아부터 장년까지 전교인 힐링캠프

가족·교우·외국인 성도 함께 모여, 자연속 영적 활력 찾는 계기 마련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의 모교회 격인 서울 중앙성결교회(한기재 목사)는 지난 주말 서울이 아닌 강원도 평창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교회 예배당이 아닌 타지에서 주일예배가 진행된 건 115년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중앙성결교회는 1~3일 강원도 휘닉스 평창 리조트에서 전교인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유아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1000여명이 모였다. 조부모부터 손주까지 3대가 함께 캠프를 찾아가 하면 몽골인 중국인 등 외국인 성도와 새신자들도 초대됐다. 교회 관계자는 3일 "그 동안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던 영적 활력을 되찾고 가족과 교우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라며 "말씀 중심의 집회에서 벗어나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심신을 치유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힐링과 회복'을 주제로 한 캠프는 사흘에 걸친 주요 일정이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

간 중계됐다. 캠프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도 방송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첫날 저녁 가스펠팀인 '빅콰이어'의 찬양 콘서트로 막이 오른 힐링캠프는 '온세대 주일예배' '가족축복기도회' '월삭새벽기도회' 등 영적 회복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 외에도 가족·교우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충분히 힘을 누리는 시간이었다.

둘째 날에는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주일예배가 이어졌다. '믿음의 터치'를 제목으로 설교한 한기재 목사는 예수가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과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꿈, 태아 생명 함께 지켜내요"

아름다운피켓, 3일 제1회 포리베 창작 동요 대회 개최

"생명은 소중해요. 생명을 위대해요. 우리 모두 지켜내요. 아름다운 세상에 아름다운 마음을 모두가 조금씩 나눠준다면 지킬 수 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꿈."

아름다운피켓(대표 서윤화 목사)이 3일 서울시 마포구 송문6길 신촌감리교회(임재웅 목사)에서 주최한 제1회 포리베 창작 동요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이서현(12), 육에서(12) 어린이의 '생명은 소중해요'란 노래 가사 중 일부다. 생명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신비하고 아름답고 모두가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주변에 생명을 지켜내기 힘들거나 본인의 삶을 비판하는 힘든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자는 마음을 노래에 담았다.

태아 생명 존중 길거리 캠페인을 펼치던 아름다운피켓은 이처럼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이번 동요 대회를 개최했다. '포리베'는 '작은 아이를 위해(For Little Baby)'란 의미의 영문에서 딴 단어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기와 태아, 여성의 진정한 인권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동요 대회에는 일곱 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구성된 여덟 팀이 참가했다. 아이들은 특유의 맑은 목소리로 미래

의 동생이 될 태아 생명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동요를 울동을 곁들여가며 불렀다.

최우수상은 경남 거제도에서 올라온 이수연양을 비롯해 여덟 명의 초등학생이 부른 '사랑해 엄지공주, 엄지왕자'가 받았다. 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심장이 '공공공' 뛰는 작고 귀여운 아기가 빨리 세상에 나오길 원한다는 내용의 가사를 울동을 곁들여 불렀다.

최연소 참가자로 우수상을 받은 백솔(7)양은 "작은 씨앗이던 아이가 태어나 사랑스러운 한 명의 어린이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멋진 어른으로 자란다"는 내용의 '나 여기 있어요'란 곡을 부르며, "소중한 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세상을 더 밝게 빛낼 수 있다"고 노래했다.

이외에도 한 생명이 임태되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과정이,



13. Publication Title		14. Issue Date for Circulation Data Below	
The Korean Christian Press		Sep. 27, 2022	
15. Extent and Nature of Circulation		Average No. Copies Each Issue During Preceding 12 Months	No.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Nearest to Filing Date
A.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1) Mailed Outside-County Paid Subscriptions (based on PS Form 3541) (include paid distribution outside nominal rate, advertiser's proof copies, and exchange copies)		2000	2000
(2) Mailed In-County Paid Subscriptions (based on PS Form 3541) (include paid distribution inside nominal rate, advertiser's proof copies, and exchange copies)		461	492
(3) Paid Distribution Outside the Mails (including Sales Through Dealers and Carriers, Street Vendors, Counter Sales, and Other Paid Distribution Outside USPS)		82	81
(4) Paid Distribution by Other Classes of Mail Through the USPS		259	259
c. Total Paid Distribution (Sum of 15B (1), (2), (3) and (4))		1202	1230
B. Free or Nominal Rate			
(1) Free or Nominal Rate Outside-County Copies (included on PS Form 3541)			
(2) Free or Nominal Rate In-County Copies (included on PS Form 3541)			
(3) Free or Nominal Rate Copies Mailed at Other Classes Through the USPS (e.g., First-Class Mail®)		66	66
(4) Free or Nominal Rate Distribution Outside the Mail (Carriers or other means)		602	662
a. Total Free or Nominal Rate Distribution (Sum of 15C (1), (2), (3) and (4))		668	668
1. Total Distribution (Sum of 15A and 15C)		1970	1960
2. Copies not Distributed (See Instructions to Publishers #4 (page 43))		50	50
b. Total (Sum of 15A and 15C)		2020	2000
3. Percent Paid (15C divided by 15A times 100)		66.2%	69.2%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All Periodicals Publications Except Requester Publications)

16. Signature and Title of Editor, Publisher, Business Manager, or Owner

17. Publication of Statement of Ownership

18. I certify that 85% of all my distributed copies (electronic and print) are paid above a nominal price.

19. I certify that all information furnished on this form is true and complete. I understand that anyone who furnishes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on this form or who omits material or information requested on the form may be subject to criminal sanctions (including fines and imprisonment) and/or civil sanctions (including civil penalties).

선교의 창 (203)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강통교회 속에 담긴 선교적 묵시(默示)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형교회가 있다. 한인교회를 계수하면 한국에 약 5만개, 해외에 약 5천 개로서 합치면 55,000 정도이다. 그중 주님께서 한 교회를 택한다면 어느 교회가 선택을 받을까? 그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좀 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기 위해 막대한 헌금을 쏟아부어 왔다. 그 후엔 사택과 교육관을 짓고 주차장을 늘리며 나중에는 기도원과 묘지를 샀다. 교회의 중심 자원이 본질적 사명보다는 가시적 건물에 투자되었다. 이렇게 하다 보면 100년이 훌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런 반면에 교회 건물보다는 선교와 전도, 구제에 힘쓰는 멋진 교회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북 전주시에 있는 안디옥 교회이다. 이름하여 강통교회라 한다. 이 교회는 난민수용소를 연상시킨다. 담장도 없다. 길 쪽으로 난 본당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주부도 흑백이며 전면에 담임 목사 이름도 없다. 현대 왜 불품없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는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비행기 격납고를 구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개척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였다. 교회의 모델은 사도행전의 수리아 안디옥교회였다. 그 의미는 오직 선교에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다. 본 교회는 개척 때부터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비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각 부서는 스스로 자립해야만 했다. 여성성경학교 때

다 쉽고 단순하게 표현한다. 선교란 구원 받은 자가 구원의 예수님을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이다. 행 1:8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성령 받았으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선교사'이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3. 강통교회의 7대 실천 강령

본 교회의 사명선언은 사도행전 1:8의거 "전교인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가 되어 오대양 육대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넘치게 함을 나타낸다"이다. 7대 실천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안디옥 성도는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 2) 안디옥 성도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3) 안디옥 성도는 해외선교, 농촌선교, 특수선교, 교육선교에 파송 받은 선교사가 된다. 4) 안디옥 성도는 교회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 사역에 사용한다. 5) 안디옥 성도는 선교적 조직 체제에 참여하며 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6) 안디옥 성도는 모든 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희생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7) 안디옥 성도는 교회의 모든 사역과 집회에 책임을 가지고 참여한다. 이동휘 목사는 지상명령을 관념으로 그치지 않고 가정과 목회에 접목해 나아갔다. 하나님의 은혜

큰 교회라면 흔히 나눠주는 간단한 물품이나 빵조차 나눠주지 않는다. 따라서 교회는 각 기관에 대한 재정보조가 일체 없다.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성가대 모두가 자체헌금 가운데서도 60%는 무조건 선교비로 사용케 되어 있다.

5. 강통교회를 통해 세워진 바울 선교회

"은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전주 안디옥교회는 개척한지 3년째인 1986년 3월 11일에 다른 교회들과 함께 초교파 선교단체로써 "바울선교회"를 창립하였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바울과 같은 선교정신으로 믿음선교를 출발한 것이다. 바울선교회의 7대 정신은 *절대 구원 *절대 소명 *절대 기도 *절대 감사 *절대 복종 *절대 헌신 *절대 사랑이다. <http://mk2021.or.kr>

싶어 한다. 왜 그러한가? 대부분 교회들이 필요 이상으로 예배당 건물에 집중(All In)하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전통교회에 대한 실망과 식상함이 너무 크다. 이제 전주 안디옥 교회는 내년이면 40주년째가 된다. 앞으로 40년을 내다보며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을까?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우려함이란 강통교회도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다. 아무튼 본 교회는 세계 한인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신선하며 도전적이다. 그렇다면 릭 워렌(Richard Duane Warren) 목사의 "목적 이끄는 교회"처럼 개척자의 숭고한 선교정신이 형태(Form)와 내용(Contents)면에서 이어지면 좋겠다. 이 교회마저 세속의 흐름을 따라 크고 화려한 교회당을 건축한다면 아마도 낙심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맺음말

"불편하게 삼시다." 여기 문구는 이동휘 목사가 늘 외쳤던 교회 표어이다. 그는 예배당은 그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 짓는 건물이 아니에요. 내부를 화려하게 꾸밀 일도 없고, 예배당은 각자의 안목과 가치관으로 짓는 것이죠. 교회가 가난해져야 사회가 부유해집니다." 이 말 속에는 교회건축에 대한 그의 철학이 담겨있다. 그 목자에 그 양들이라고 강통교회 성도들은 불편함을 오히려 감사로 받아들이며 대견해 한다. 비움의 사랑실천은 우리를 감동케 한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불신자들의 평가는 혹독하다.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질타하는 자들도 있다. 성도들도 마음이 무겁다. 본질에서 떠나 세속화되어 가는 교회들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세대에 교회마저 타락하면 답이 없다. 문제가 안 풀리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본 선교단체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수행케 했다.

6. 강통교회의 상징성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강통교회를 보고

jrsong007@hanmail.net

전주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구조가 선교적이다.
본 교회는 예산의 60% 이상을 선교에 사용한다.
세계교회가 강통교회를 닮아 간다면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상품이나 음식을 주지 않았다. 겨울 성경학교 때도 마찬가지였다. 성경학교 마지막 날 글짓기를 하였다. 이때 한 아이의 글 중에서 '강통교회'라는 말이 나왔다. "우리 교회는 강통의 반을 잘라서 엮어 놓은 것 같은 강통 교회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다. 우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선교하는 교회는 성결해진다.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은 선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교적 교회를 넘어 선교사 교회(missionary church)가 되어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누군가를 파송하는데 중심을 두지만, 선교사 교회는 모두가 선교사임을 깨닫고 자신이 나가는 교회이다. 구체적으로 선교 영역을 *해외 선교사 *자녀 선교사 *기도 선교사 *물질 선교사 *직장 선교사 *가족 선교사 *문화 선교사 *길거리 선교사 등 8가지로 구분한다."

로 그의 4자녀들도 모두 선교사로 나간 것이다.

4. 강통교회의 재정구조

본 교회는 매년 전체 예산의 60%, 많을 때는 70% 가까운 비용을 선교와 사회구제비로 지출하고 있다. 1986년 첫 선교사를 내보낸 이후 현재 90여 개국에 400명의 선교사를 파송 후원하고 있다. 또 교회는 지역의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위한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크리스마스 예배 때 다

바울선교회 의하면 현재 한국인 파송이 85개국에 404명, 현지인 파송이 25개국에 94명이다. 이를 위해 1천여 개의 교회가 지원하고 있고, 1천500명 이상의 개인 후원자도 있다. 한 사람의 선교적 헌신이 이처럼 기념비적인 강통교회를 낳았고 바울선교회를 태동케 하여 한국 선교단체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수행케 했다.

1. 강통교회 이름의 유래

이동휘 목사는 1983년 3월 27일 전주 안디옥교회를 개척하였다. 본 교회당은 미군이 사용했던 양철지붕으로 된 소형

2. 선교사 교회를 지향하는 강통교회

선교란 무엇인가? 이동휘 목사는 학문적인 접근과 정의보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22강 /안식년과 희년 (2)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토지'에 관해서도(레 25:23-28) '가옥'에 관해서도(레 25:29-34) '가난한 형제'에 관해서도(레 25:35-43) '종들'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원하대로 사는 삶을 따라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풍속을 따르며 애굽왕의 종으로 있던 신분에서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25:38),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25:55)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않고 조

각 석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신다고 합니다.(레 26:1-3,9) 하나님은 철따라 비를 주시고 소출을 풍성케 하시어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고 평화를 주심으로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행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으로부터 해방 시키시고 하나님의 종 삼으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레 26:12,13)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싫어하여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것이

이다.(레 26:14)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대적'에게 패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일곱 배나 더 징벌하시어 '가뭄'을 주실 것이고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리시어 들짐승을 보내시고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일곱 배나 더 치시어 칼을 보내시고 '염병'을 보내시고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양식을 끊으실 것입니다.(레 26:15-26)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일곱 배나 더 징벌하시므로 그들은 그들의 아들과 딸의 살을 먹을 것이고 하나님이 산당을 하시고 분향단을 부수시고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시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그들을 싫어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성소들을 황망하게 하시고 제사를 받지 않으실 것이

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므로 원수들이 놀랄 것입니다.(레 26:27-32)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민족 중에 흠으실 것입니다.(레 26:33) 그리고 그들이 원수의 땅에 살 동안 그들의 땅은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레 26:34,35) 또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쇠잔해질 것입니다.(레 26:36-39)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시겠다고 합니다.(레 26:40-45)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회복을 위해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스라(스 9:1-15), 느헤미야(느 1:5-11) 그리고 다니엘(단 9:1-19)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

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레 26:46)

이후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한 '서원의 값'(레 27:1-13), '집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값'(레 27:14,15), '밭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값'(레 27:16-24) 그리고 '정한 모든 값'과 가축 중의 처음 난 것, 부정한 짐승, 심일조 등에 대한 계명을 주십니다.(레 27:25-34)

레위기는 언뜻 보기에는 복잡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한 규정을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18:3-5)는 말씀을 반복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열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거룩을 향하신 그 열심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셋째 대접재앙 (계 16:4-7) 찬 394장

이미 계속되는 심판은 완성된 구속을 향하여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재앙이 강과 물 근원에 쏟아졌습니다. (4)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진 재앙은 모든 생물의 원천인 물의 근원지에 임하여 온 생물의 생존에 타격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천사와 제단의 순교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찬양합니다. (5, 7) 이것은 아쉬운 심판이 아니고 당연한 의의 심판임을 천사들도 순교자들도 인정합니다. 의인들의 피를 흘

린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으니 하나님은 전정 의로우십니다. 셋째, 그 이유는 성도들과 순교자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6) 이런 가공할 천벌이 생존의 원천에 임한 것은 교회를 미워하고 해쳤기 때문에 언약대로 된 것입니다. (창 12:3) 누구든지 교회를 사랑하면 복을 받으나 교회를 해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화 넷째 대접재앙 (계 16:8-9) 찬 397장

그 다음에 일어난 재앙은 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첫째, 그것이 해에 쏟아졌습니다. 불로 사람을 태우는 일이 생깁니다. (8) 코비드로 죽은 사람을 화장 하듯이 극도의 고통을 당하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둘째, 그러나 회개할 줄 모릅니다. 심각한 고통으로 회개할 것 같은데도 돌이킬 줄 모르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잠깐 회개의 마음으로 사는 자

가 복됩니다. 셋째, 주재자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둔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외적재앙은 내적 재앙의 표현인 화석같은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이 재앙의 날에 심령의 가난을 가진 자는 진정 복됩니다. (마 5:3)

수 다섯째 대접재앙 (계 16:10-11) 찬 415장

그 다음의 재앙은 간접적으로 짐승이 활동체인 자연, 공기 및 물에 임한 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모든 악의 근원지에 내려졌습니다. 첫째, 그것은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습니다. (10) 적그리스도의 왕좌에 재앙이 임함은 하나님의 완성된 구속이 가까웠음을 알려줍니다.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둘째, 혀를 깨물 정도의 고통이 일어났습니다. (10) 그

나라는 흑암으로 변하고 여러 방면의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심판에 고통이 따름은 당연한 일입니다. 셋째,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훼방합니다. (11) 이것을 보면 그 재앙은 초자연적인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상한 심령을 지키는 자가 복됩니다. (마 5:4)

목 여섯째 대접재앙 (계 16:12-14) 찬 455장

이번에 내린 재앙은 마지막 전쟁, 아메겟돈 전쟁을 준비하게 합니다. 첫째, 유브라테스강에 쏟아졌습니다. (12) 그 강이 육지로 변하여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최후 결전지는 최후 영적 전쟁을 생각케합니다. 이 재앙은 외형적인 세계에서 내면적인 세계로 나아갑니다. 최후적인 영적 전쟁으로 모든 구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 더러운 영이 나왔습니다. (13) 이것은 마귀와 적그리스

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거짓 교훈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에는 비진리로 혼란이 일어나 사람의 마음이 혼미케 될 것입니다. 셋째, 그 귀신의 영은 천하 왕들을 모읍니다. (14) 마귀는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정치 권력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지나는 우리는 크게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금 자기를 지키는 자 (계 16:15-16) 찬 507장

이런 최종 전쟁을 말씀하신 주님은 그 속에서도 교회를 위로하며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이것은 아메겟돈 전쟁의 때에 성도가 불을 약속합니다. 첫째, 아메겟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16)하나님의 창세 전 구속 경영은 아메겟돈 전쟁으로 마쳐집니다. 그 영적 전쟁으로 성도는 환란을 당하나 아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보호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때 주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15) 예고합이

없이 오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회 인식을 가지고 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셋째,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됩니다. (15) 그리고 다른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살피며 자신의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믿음으로 얻은 의를 따라 모든 활동에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자가 그 시대를 이깁니다. 자기를 힘써 지킵시다. (유 1:21)

토 일곱째 대접재앙 (계 16:17-21) 찬 399장

마지막 재앙으로 세상 나라 바벨론은 완전히 망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망할까? 첫째, 큰 지진이 일어남으로 무너뜨립니다. (18) 이것을 초자연적인 능력 곧 하나님의 심판의 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19) 세 갈래란 완전 파멸을 가리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도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리시면 그 누구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셋째,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21)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하여 큰 우박이 떨어지는 죽음의 공포로 가득차게 합니다. 마침내 이 세상은 진노의 술에 취하여 혼돈과 공허 속에 사로잡히며 회개보다 하나님에 대한 비방으로 채워집니다. 그 날이 우리 시대에 다가올 것을 깨달아 주 안에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기독교교육 (14)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기독교교육과 제자훈련

기독교교육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의 두번째는 제자훈련입니다. 신약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250번 이상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사역은 디모데 후서 2:2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사역에 임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선출된 리더들, 단기 프로젝트를 위한 리더들, 비공식적인 리더들 등, 모든 리더들을 위한 훈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자훈련은 지상명령 수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정입니다. 지상명령의 핵심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족속을 향해 나아가며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바로 제자를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훈련의 대상은 새신자와 기신자(기존신자)와 리더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신자들이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를 위한 훈련은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리더의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리더의 자질을 개발하는 것은 일반적인 리더십훈련, 잠재적인 리더훈련, 기본적인 사역훈련, 영적 성장을 돕는 훈련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리더훈련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의 훈련 또는 사역과 병행한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역 전 훈련은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사역을 해본 지 오래된 사람 또는 새로운 사역을 맡을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미 사역 중인 주일학교교사, 제자훈련교사, 집사, 위원회 구성원 등은 사역과 병행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새신자가 그리스도를 믿어오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영적인 갓난아기로서 새신자라고 부릅니다. 아기가 자라며 부모에 관해 알게 되고 부모를 닮아 갑니다. 이와 같은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성장을 위해 음식을 공급해주어야 하고, 마음의 성장을 위해 교육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새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음, 기도, 성경공부, 예배, 사랑 등을 배워 교회의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리더들이 지치고, 리더들이 자주 바뀌는 이유로 인해 많은 교회에서 리더훈련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리더의 발굴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자훈련은 새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음, 기도, 성경공부, 예배, 사랑 등을 배워 교회의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주일 저녁에 제자훈련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도 분주한 일들이 생겨서, 주일 오후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위해 휴식이 필요해서, 오락/스포츠 때문에,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요즘 많은 교회에서 제자훈련이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현대인들의 헌신감 결여와 귀차니즘(Lazism)에 뿌리를 둡니다. 귀차니즘이란 아무것도 하기 싫어 게으름을 피우는 현상을 뜻합니다.

제자훈련은 기신자들을 훈련하여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때문에(엡 4:12)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갓난아기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단단한 음식(히 5:12-14)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역사, 기독교윤리, 교리, 교회의 조직과 의사결정 방법, 청지기의 삶 등을 가르쳐야 합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교우들을 제자화 하기 위한 훈련에 적합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은 기도로 제자훈련 과정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자훈련을 위한 부서를 조직하고, 부서를 이끌 책임자를 선정합니다. 이어서 제자훈련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여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교과과정을 확보하고, 교사들을 모집하여 훈련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부서를 전체 교회에 소개합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 만들어진 제자훈련 과정은 설교와 광고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제자훈련은 새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음, 기도, 성경공부, 예배, 사랑 등을 배워 교회의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자훈련은 교회의 기독교교육 사역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입니다. 교회는 새신자와 기신자 그리고 리더들을 훈련할 필요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생활과 교회 안팎에서의 신앙생활에 관련된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에 있어 제자훈련은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요소입니다.

제자훈련은 새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음, 기도, 성경공부, 예배, 사랑 등을 배워 교회의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jonk@dbu.edu

2022년 성경 암송 대회

최우수상: 상금 \$1000과 메달 및 상장
한국어부(영어부 동일)
▶ 1등상: \$500
▶ 2등상: \$300
▶ 3등상: \$150
▶ 장려상: 0명 - 상품
▶ 최연소상과 최고령상: 상품 및 상장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인간 언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는 일이며 기도 생활을 더 확고하게 해 줍니다. 성경을 많이 자주 암송 할수록 바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확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성경 암송 대회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 일시**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 장소** 목양장로교회
- 참가 자격** 한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연령 제한 없음)
영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 재학생 (초등학교 - 대학원)
- 암송 성경책** 1. 한국어 성경 : 개역, 개역 개정, 새번역 중
2. 영어 성경 : NIV, KJV(or NKJV) 중 택일
- 신청서 제출처** The Lord's Table Mission USA (주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신청서와 암송 범위는 연락 주시면 곧바로 이메일, 카톡, 메세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참가비** \$30 (식사와 간식 및 사무비 - 7월 30일 이후 \$50)
- 신청 마감** 9월 10일 우편물까지
- 문의처** 주님의 식탁 선교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T. 347-559-3030, 718-886-3730, appa2God@gmail.com

공동주최 : 주님의 식탁 선교회 **중앙장의사** **주관** : 하늘가족
광고후원 : 뉴욕교회협의회, 단비기독교TV, CTS뉴욕, KCBN 미주기독교방송, 국민일보 USA, 미주크리스찬, 복음뉴스, 아멘넷, 뉴욕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상품후원 : 뉴욕교회 (회장: 김희복 목사), 뉴욕교회이사회 (김일태 이사장), 미주예장합동 (회장: 안재도 목사), 펠릭한인회 (오대석 목사)
행사후원 : 뉴저지평화기독교원 (김중철 원장), 뉴저지연하수 (대표: 김 기) *후원 하실 분은 연락 주세요

신로 편지

일본

할렐루야! 언제나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일본도 코로나로부터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고 있고 개별 입국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아베 전총리의 죽음과 국장으로 인해 1차적 어려움 등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일하시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반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했던 사역들을 다시 계획하며 시작하려 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소원 합니다.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규제가 풀려가고 있기에 더욱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로코부교회안에 주의 충성된 제자들이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계신 중국인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기도로 물질로 함께 동역함으로 일본선교에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언제나 삶 속에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 요로코부교회 소식

1. 16주년 감사예배를 드렸고 두 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16주년 예배에는 코형제와 나옴이 자매를 집사로 세우는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16주년 예배에 세워진 두 분의 집사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직분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2. 1:1심방을 통해 새롭게 오고 있는 중국인 영혼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1:1 심방은 특히 새로 오고 있는 중국인 영혼들과의 시간을 중점적으로 가졌습니다. 또한, 코집사부부가 새로 이사한 집을 방문하였는데 앞으로 중국인 지체들이 함께 교제하는 장소로 사용될길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신 중국인 영혼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후자매는 직장 이직위해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을 하여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 10월 사역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소원합니다.

① 찬양예배(10/30)를 통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② 중국인 새신자 집회(10/30)를 통해 중국인 새신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③ 성경 읽기 모임 및 찬양모임(주일 예배 후)을 통해 은사 모임이 정착되게 하소서.

④ 캠퍼스전도(매주 수요일)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⑤ 조치대학 소자매와의 모임이 성장케 하여주소서.

⑥ 교회소풍(10/21-22) 통해 교제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4.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① 이번엔 세워진 코집사, 나옴이 집사를 성령 충만한 일군으로 굳건히 세워 주소서.

② 10월의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③ 교회정착 중인 중국인 영혼(후자매, 소자매, 위칭자매, 캔형제와 구도자 사이사)들을 하나님 깊이 만나주소서.

④ 저희 부부를 성령 충만케 하시어 겸손히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의 제자를 세우게 하여주소서.

5. 가족 소식

① 수아와 예욱이의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② 양가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최윤석, 신경희 선교사
kyunghaei@hanmail.net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국가명
동아시아 X국

▲ 종족명
아미족

▲ 인구
약 2만 명

▲ 종족의 종교 상황
티벳 불교

▲ 모델 뉘신 분에 대한 특이사항
표준어 선정을 위한 언어 조사 중 만났던 여인이다. 생전 처음으로 외국인을 만난 것에 반가우면서도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언어 조사를 위한 모든 질문과 테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던 산골의 여인이다.

▲ 기도제목

1. 아직 종족어의 문자가

없는데 많은 현지인들이 자신들의 글자로 언어를 기록하기 원합니다. 속히 문자가 제정되어 지역 사회에서 잘 사용되도록

2. 아직 교회와 신자가 없는 종족이지만, 복음에 관심

있는 소수 현지인들이 성경번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번역되고 지역 사회 가운데 건강한 종족 교회가 세워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Z세대, 급여 공개에 꺼리낌 없다

(3면에서 계속)

경제학자인 테라자스는 임금에 관한 정보가 불투명하면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이 그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해당 임금 수준이 업무 경력 등 논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부당한 차별이라고 여겨지는 인종이나 성별에 근거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임금 공개엔 잠재적으로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도 경고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임금 압축'과 같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압축' 효과란 신입사원의 임금과 오랫동안 근무한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서로 비슷해져 결과적으로 근로자 간 임금 분포가 압축되는 현상이다.

한편 비록 지난 90년간 미국 법은 근로자끼리 임금을 주제로

논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은 회사의 눈치가 보여서 임금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올해 '글래스도어'와 '해리스 인사이츠 앤드 애널리틱스'가 함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28%가 직장 분위기와 동료들과 월급에 관해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바로 작년만 해도 '애플'사는 이용약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업무용 메신저 '슬랙' 중 일부 채널을 폐쇄했다. 해당 채널은 임금과 관련한 얘기가 이뤄지던 곳이었다.

또한 작년 1월 콜로라도주 급여 투명성 법을 제정하자 일부 원격 근무자 고용주들은 콜로라도주 주민을 뽑지 않으면서 법망을 피하고자 했다. 이러한 행위가 너무 만연해지자 어느 콜로라도주 주민이 콜로라도 출신 지원자를 뽑지 않는 회사의 이름을 공개한 웹사이트를 개설할 정도였다.

그러나 더 많은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이 임금에 관한 공개 담론을 피하

기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이자 '애플'이나 '메타'와 같은 거대 테크 기업의 본사가 자리한 캘리포니아주의 임금 투명성 법안 또한 당장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콜라쿠르시 CEO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콜라쿠르시 CEO는 "이제 더 이상 기업들은 '(콜로라도주에 그런 법이 있으면) 콜로라도주 출신은 뽑지 않겠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면서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주도 임금 투명성 법을 마련하면서 기업들은 '그래, 이제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틱톡커로 활동하는 윌리엄스는 급여 공개 활동이 커리어의 전환점이 됐다.

원래 수석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면서 11만5000달러를 벌었던 윌리엄스는 틱톡 영상 제작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관뒀다. 그리고 올해에만 15만달러를 벌어들일 예정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인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 521-0391, www.hankings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nlscusa@yahoo.com / www.nlsc.com Tel: (323) 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213)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어반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 719-2244, www.dkc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 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p> <p>www.elpostfamily.org Tel: (213) 700-9928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반: 오후 2:00 성인영어반: 오전 9:15, 11:30 일어반: 오후 1:30(수영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 854-4010 / biblehall@bc.org / www.bkc.org 18700 Hanover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213) 749-7691 824 W. Venice Blvd., CA 90015</p>	<p>살비치사랑교회 (Seal Beach St-Ra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주일예배: 오후 6:30</p> <p>Tel: (310) 749-4756 살비치 리저널 클럽하우스 3 Lobby(주일 교회실 1층 1/4)</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p> <p>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합동목사) 상담사: (월-금) 오전 9:45 (분당) 오전 5:30(토) 사역대상: 1. 영성성장 2. 교회 활성화 3. 영성상담 4. 영성사역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상담사역 4. 네트워크 사역</p> <p>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반: 365일 24시간 온</p> <p>Tel: (714) 446-6200, www.gracem.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 오후 7:20(금)</p> <p>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 646-9259 www.socals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 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 (101부)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찬양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분당)</p> <p>Tel: (310) 370-5500, www.lorancec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하늘소망교회</p> <p>담임목사: 김덕수</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5:30(토) 수요모임: "아침같이 일어나서" 오전 9:30 오후 7:00</p> <p>Tel: (213) 500-2948, ccbk.kim@icbdc.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 “웰빙 의류”

컨버세이션, 시드니 공과 대학 연구진, 탄소량 감소/노동자까지 살리는 ‘웰빙 의류’ 사업 현황 소개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못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웰빙 의류”가 도움이 될까?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다면,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다.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믿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개연성은 충분한 이야기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다. 반면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 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했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하자는 아이디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는 것,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

은 소득 수준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물론,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 방안까지 포함된다.



파라서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 지속가능한 미래 연구소의 연구 이사들인 서맨사 샤프와 모니크 레타말과 시드니 공과대학 연구책임자인 테일러 브리지는 “웰빙 의류”의 현황과 전망을 말한다(To make our wardrobes sustainable, we must cut how many new clothes we buy by 75%).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

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

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

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패션 업계에 만연해 있는 노동권 남용이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2.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지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입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3.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영(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4. 다양한 의복 문화

마지막으로,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 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성장 모델에서 지속 가능한 접근으로 패션 산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성장 중심 패션 산업이 관점을 바꾸려면 정책 입안자와 산업계가 광범위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또한 패션 업계가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이는 너무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패션의 미래를 고민하고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의류를 추구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 우리의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지 않게 돌 수는 없기 때문이다.

책 소개



박성훈 지음 (쟁기출판 편집위원/브루더호프 한인리더)

이상한나라 하나님나라

쟁기출판 박성훈 편집위원이 브루더호프 이야기 ‘이상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출간했다.

본서는 저자가 속해있는 브루더호프의 이야기를 꾸밈없이 진솔하게 풀어낸 책이다.

저자는 먼저 브루더호프 공동체에 관해 “브루더호프는 독일어로 ‘형제들의 처소’이며 유럽의 급진적인 종교개혁 세력인 아나뱃티스트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 공동체 삶의 토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에 언급된 신조를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특히 신약 성서 사도행전 2장과 4장 그리고 산상수훈에 영감을 받아 공동체 속에서 서로 평생 섬

기는 삶을 살고자 하고 평생이 부르심에 충실하게 남으려 하고 한다”고 브루더호프의 기초정신을 말하며 “이러한 브루더호프의 파운데이션을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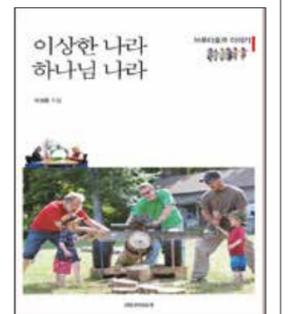
떻게 삶으로 살아가는지를 풀어나간 책”이라고 서문에 기록하고 있다. 본서는 1부, 이상한 나라 하

남인 나라 - ‘자네츠를 방문하다’, ‘다비드 할아버지’, ‘브루더호프가 영향을 받은 유산들’, ‘공동체로 사는 이유’, ‘발에 숨김 보화를 깨는 기쁨’을 비롯 12개의 글과 2부, 함께 사는 삶의 기쁨 - ‘아주 기분 좋은 거래’, ‘호보가 뭐길래’, ‘물고기 두 마리의 기적’외 17편으로 구성, 총 33개의 글이 수

록되어 있다. 본서에는 조한기(한겨레신문 종교기자), 김난예(교수 한국침례교신학교), 김동권(신

부, 김정호목사(뉴욕 홀리스 제일교회), 박신욱목사(시드니교회 국제대표), 백창건교수(NY Theological Seminary)의 에도 많은 지도자들의 추천 글이 게재되어 있다.

박신욱목사는 추천사에서 “브루더호프 동네 이야기는 우리네 교회 모습과 너무 달라서 과연 그렇게 살수있을까 부러움과 좌절감이 교차하는



나라”라고 말하며 “모두 한번쯤 가볼 것”을 권하고 있다. 본서의 관한 문의는 Sunghoonpark@mailstack.com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이상한 나라, 하나님 나라인 브루더호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실현되는 가보고 싶은 나라”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2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펜벳(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즈(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북음사 562-865-4949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추천 도서



하나님을 말하다 팀 켈러 두란노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김성경, 토기장이	먹다 듣다 걷다 이영림 두란노	내 마음도 쉬고 싶어요 유은정 규장	한달란트 박성현 두란노	왜 괜찮은 해피엔딩 이지선 문학동네
-------------------------	--------------------------------------	------------------------	---------------------------	--------------------	---------------------------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